

코스피	6226.05 (+134.66)	코스닥	1162.97 (+10.54)
금리 (2년)	3.340 (+0.012)	환율 (원/달러)	1474.40 (+0.20)



칩 가격 50% 인상... 반도체 상승사이클 승부수

삼성전자, 가격 협상력 확보
4나노 등 주요생산라인 풀가동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 흐름 예상
평택 P4라인 장비발주 착수
수요 확대에 발빠른 투자 확대

D램 가격이 급등세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HBM4 로직 다이 가격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가격 상승 흐름이 메모리를 넘어 비메모리 영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수요 확대와 맞물려 투자 역시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으로 생산되는 HBM4용 로직다이 가격을 올들어 기존 대비 약 40~50%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직다이는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이다. 삼성전자는 HBM4 출하 확대와 맞물려 로직다이 수요도 함께 증가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삼성전자의 4나노 등 주요 생산라인이 사실상 풀가동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파운드리부문의 전반적인 수익성도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4면>

삼성전자는 D램 가격 또한 올해 2분기 인상을 단행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1분기 큰 폭의 가격 인상에 이어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평균 약 30% 인상된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세월호 12주기 기억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스1

전해졌다.

이러한 가격 상승세는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만 TSMC 역시 올해 5나노 이하 전 공정에서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 증가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4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금리 동결, 현 상황에 부합 인플레이 오면 통화정책 변화”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청문회 “금리 7연속 동결, 전략적 인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지금 금리는 맞지만, 물가의 성격이 바뀌면 움직이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현 금리 수준은 적정하다고 보면서도, 중동발 충격이 기대인플레이와 근원물가의 2차 파급으로 번질 경우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물가 상방압력이 커지는 반면 성장세는 당초 전망보다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총재로 임명되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청문회는 그 원칙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 언어로 표현한 자리였다.

◆ ‘동결 유지’ 아니라 ‘전략적 인쇄’

신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연 2.50%) 동결 결정에 대해 “현 상황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7회 연속 동결을 두고도 “금리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수동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전략적 인쇄”라고 규정했다.



신 후보자가 출범 전부터 최근 한은의 정책 판단을 큰 틀에서 수용했다는 뜻으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노선 전환보다 연속성에 방점이 찍혔다.

실제 한은은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중동전쟁 여파로 물가의 상방압력과 성장의 하방압력이 함께 커지고 있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태의 추이와 파급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당시 금통위 판단이었다.

신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현(現) 이창용 한은 총재 체제의 최근 결정을 뒤집기보다, 동결의 의미를 ‘관망’이 아닌 ‘판단’으로 재해석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신 후보자 지명 이후 국제결제은행(BIS) 출신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이력에 주목해 통화정책 톤의 변화 가능성이 주시했지만, 청문회에서 확인된 1차 메시지는 ‘현 수준 금리 유지’에 가까웠다. 다만 이는 무조건적인 동결 지지라기보다,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는 선풍리 방향을 정하지 않겠다는 신중론에 가깝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社告

메트로경제가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찾습니다!

■ 모집부문

- ① 신입 취재기자(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② 영상 촬영 및 편집(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 모집내용

- ①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 ▲ 2차: 취재역량평가(기사 작성·영상제작 및 편집 평가)
 - ▲ 3차: 면접(1차 실무 면접 → 2차 최종 면접)
- ② 모집인원: 00명
- ③ 응시자격
 - ① 4년제 정규대학 또는 동등학력 이상 졸업자(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 ② 경력, 성별 및 나이 무관
 - ③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④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회사입사지원서 1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 구인사이트(잡코리아·사람인)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예정)증명서 등은 추후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6년 4월 1일(수) ~ 2026년 4월 30일(목)
- ②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 방문 및 우편 접수(4월 30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옥인동, 메트로빌딩)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 앞

■ 채용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8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취재역량 평가시험

- ① 일시: 2026년 5월 13(수) 10시 ~ 16시 40분
- ② 장소: 추후 통지
- ③ 내용: 공지하는 주제로 취재기사 작성 또는 영상제작물을 제작해 제출
- 1차 실무면접
 - ①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② 일자: 2026년 5월 14일(목)~15일(금) 중 1일
 - ③ 장소: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2차 최종면접
 - ① 대상: 취재역량평가시험 및 1차 실무면접 합격자 <2면에 계속>

metro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제조주권 확보”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위기, 기회 만드는 역량·의지 필요”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제조산업 주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정청래 “세월호 참사, 결코 지난날 아픔 아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약속” /사진 뉴시스
▲‘李 대통령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심사 종료... 수감차고 청사나와

▲‘김부겸 지지’ 홍준표 “그래도 대구는...선거 알 수 없다”
▲與 “장동혁 방미, 사진 몇 장 남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이준석 “통일교 의혹 후보 공천한 뻔뻔한 與, 부산이 용납해야 하나”
▲이원석 “대장동 수사, 文 정부 잔여 사건... 尹 한 번도 만난 적 없어”

“여야, 비축유 확대·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초당적 협력”

중동상황 대응·극복 긴급회의

민주 “힘모아 위기 반드시 극복”
국힘 “韓,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차량 5부제 등 탁상행정 재검토”

여야가 16일 정부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치 의지를 다졌고, 비축유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야당의 제안에 따른 입법과 예산 어느 측면에서든 초당적으로 협조·협력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여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큰집인 민주당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의 성

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하고 있다 보니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 환율 안정 대책 마련 ▲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 재검토 ▲ 차량 5부제 등 탁상행정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충분한 협의보다는 의석수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 자리가 협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

로 여야정 간 상시적인 소통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생 구하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탰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차례로 중동 전쟁 상황과 범정부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여야정은 약 20분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축유 확대 추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중동산 원유뿐 아니라 비중동산 원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사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산업부 차관에게 지금 비축유로 원활하게 정유사 수유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향후 비축유를 확대하고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비중동산 원유는 러시아산도 포함인 가라는 질문에 문 원내대변인은 “남미, 아프리카 등 (수입선)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러시아산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 회의)를 정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최고가가격제 후 휘발유·경유 소비 줄어”

산업부 ‘소비 확대’ 주장 정면반박 원유 안정적 보장, 수급 우려 선그어

정부가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비가 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소비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유소 판매량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첫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의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13.8%, 경유 10.1% 등 전체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총 판매량은 255만 2000kl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만 1000kl)보다 12.4%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보장실장은 브리핑에서 “3차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동결한 이후 석유제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보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넷째 주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고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도입을 보장받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강한식 비서실장이 발표한 2억 7300만 배럴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말까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원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활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4~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사태로 4~5월 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는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랍오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李, 英·佛 주도 호르무즈 화상회의 참석할 듯

청와대 “대통령, 긍정적 검토 중
오늘 저녁 시작, 여러나라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이번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때 시작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과 안전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연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함께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

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회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낼 방침으로, 결과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문이 채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의 참여 규모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30~40국이었으나 현재 국제기구를 포함해 (초청국) 70~80국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배제라고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연대 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영·불과 소통하며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관과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묵인 한국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물가-성장목표 상충시 ‘물가 중점’ 취지

>> 1면 ‘금리 동결, 현 상황...’서 계속

◆ 2차 파급 오면 통화정책 역할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 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이른 국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급충격이 오래 지속돼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금리를 건드릴 단계가 아니지

만, 물가 충격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 지점은 신 후보자가 단순한 동결론자가 아니라, 물가 충격의 전달 경로와 지속성을 보면서 대응 강도를 정하겠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물가와 성장 목표가 상충할 경우에는 물가에 중점

을 두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있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창용 체제의 최근 동결 기조를 잇되, 그 위에 ‘물가 2차 파급 시 대응’이란 보다 분명한 조건을 엿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차별성을 함께 나타냈다. 당장 금리 방향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정책 판단 기준이 성장 둔화 그 자체보다 물가의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길어진 노후, 달라진 연금 공식... 청년 투자·중장년 리밸런싱

연금과 생존전략

⑤ 세대별 자산 설계 <끝>

은퇴 이후에도 30년 이상 생존하는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노후 준비도 중요해졌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은퇴 이전의 소득을 노후로 이전하는 '연금'이다. 세대별로 은퇴까지 주어진 시간이 상이한 만큼, 연금자산의 극대화를 위한 세대별 전략이 필요하다.

◆ 청년세대 '장기 투자' 중심

은퇴까지 시간이 많은 청년세대(20~30대)는 미래의 연금자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다. 손실이 발생해도 만회할 수 있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선택할 수 있어서다. 학생이나 군인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전체 납입 기간을 늘리는 전략도 유효하다.

단기 일자리에 종사할 때는 자신의 근로계약형태를 점검해야 한다. 근로계약이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형태라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국민연금의 납입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다.

청년층, 장기·적립식 운용 유리 연금저축·IRP 등으로 절세 효과 위험자산 투자로 수익률 제고

퇴직연금 투자 시에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비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또한 투자지식이 불충분하다면 분산투자 형태로 안정성이 높은 펀드(집합투자증권)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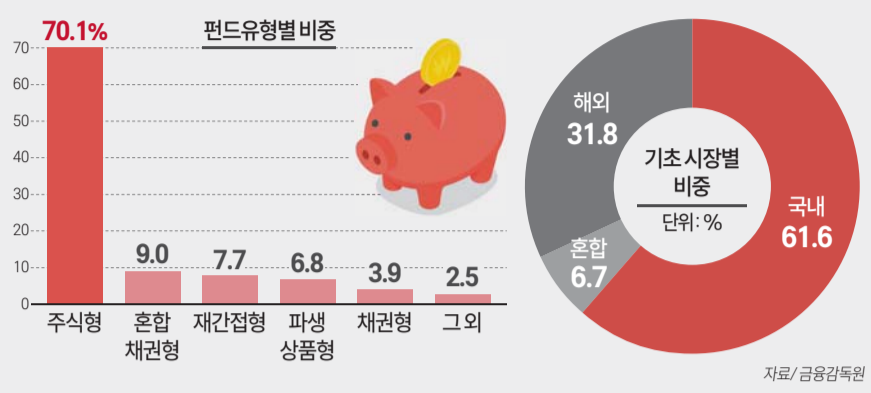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통해 연령대별·업권별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최상위권 가입자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 연령대와 관계없이 최상위권 투자자들은 약 80%의 연금자산을 펀드(ETF 포함)에 투자했으며, 주식형 펀드와 혼합채권형 펀드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적립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총 900만원의 납입액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하며, 환급 규모는 소득에 따라 13.2%(소득 5500만원 이상)~16.5%(소득 5500만원 이하)다. 30년간 한도를 채워 납입한다면 최대 4455만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미래에 연금 형태로 적립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액은 실적배당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투자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과 달리 위험자산 비중 제한도 없다.

개인형IRP는 운용방식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지만 개인이 임의로 가입 및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급여노동자만 가입이 가능한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위험자산 비중

퇴직연금 고수들의 펀드유형과 투자지역



은 DC형과 동일하게 70%로 제한된다.

◆ 중년·장년 '자산 리밸런싱' 중심

은퇴가 가까워지는 중년세대(40~50대)와 장년세대(50~60대 초반)는 '자산 리밸런싱'을 준비해야 한다. 청년세대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개인형IRP 등을 활용해 현재의 소득을 미래로 분배하는 '생애소득 재분배'를 지속하는 한편, 급여소득이 사라진 이후에도 각종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에도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라면 먼저 국민연금의 가입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퇴직이나 휴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해 납입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60~64세에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임의계속납입' 제도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도 재점검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퇴직금 제도를 유지한 사업장이 많았던 만큼, 장년층은 청년층과 비교했을 때 은퇴 이후에 기대가능한 퇴직연금 소득이 적은 편이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이 불충분하다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등 절세 혜택이 제공되는 연금형 상품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적합하다.

중장년층, 자산 재배분이 핵심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려 대비 은퇴 뒤 주택연금 활용 필요

'일시금 수령'에도 유의해야 한다. 퇴직이나 은퇴 시 기존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액은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데, 중장년 세대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익숙했던 만큼 이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개인형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수령 시 제공되는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도 사라지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이 좋다.

예금을 비롯해 금융자산이 충분하다면 고배당주를 보유하거나 배당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배당률이 높은 주식은 기업가치 성장에 따른 자산 증식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이나 펀드 투자 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의 투자수익금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주식을 직접 보유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중소세가 부과되므로 분리과세 대상인 펀드를 혼합해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배당형 펀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 계좌를 통해서도 투자가 가능하며, 이 경우 배당소득세가 이연되는 만큼 재무 효과도 극대화 된다.

◆ 은퇴 이후엔 '생활수준 지속'

근로소득이 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연금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연금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연금이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 제도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0세 이상이 기대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1인 가구 197만6000원, 부부가구는 298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2026년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지급액은 월 69만8000원에 불과하다.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합산해도 104만7700원이다. 기초연금의 부부간액제도를 고려하면 부부가구가 기대 가능한 연금 소득은 월 200만원 미만이다. 적정 생활비에 약 100만원 가량 모자라다.

먼저,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지급연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대 5년까지 국민연금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도로, 지급연도를 1년 늦출 때마다 지급받는 연금액이 7.2%(최대 36%) 늘어난다. 2026년 국민연금의 평균 지급액인 69만8000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5년 미룬다면 매달 94만9000원을 받게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까지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지급형, 일부를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훈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배우자·자녀간 연금 상속도 가능하며,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도 유지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꿈이 미래를 만듭니다

보험, 금융, 반도체·IT(AI)에서
부동산개발·상사와 사회공헌까지
내일의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DB가 함께 합니다.

Dream Big DB

[AI] 시로 생성한 콘텐츠

보험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보험시장 진출

금융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맞춤 금융 서비스

반도체·IT(AI)

글로벌 특화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선도

부동산개발·상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종합부동산서비스

ASML 실적·머스크 언급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주목'

ASML 1분기 매출 87.6억 유로
韓 고객사 비중 45%... 2배 넘게 ↑

삼성전자, 경쟁사 TSMC 대응해
하이-NA EUV 장비 도입 검토
머스크, AI5칩 설계 완료 언급



AI6, Dojo3 & other exciting chips in work.



일론 머스크 X계정 캡처.

기 22%에서 두 배 이상 뛰었다. 메모리 고객 비중 역시 절반을 웃돌며 AI 메모리 증설 수요가 장비 실적으로 본격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이번 ASML 실적이 삼성전자 신규 팹 장비 반입이 실제 수치로 드러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삼성전자는 평

택 P4(4공장)를 차세대 HBM4용 1c D램 증설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P42 라인(Ph2)는 당초 파운드리 검토 라인에서 HBM4 전용 라인으로 중장기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본 공사는 올해 2분기 착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중단됐던 P5 골조 공사 역시 재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며 평택캠퍼스 전반의 증설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메모리 부문에서는 HBM4가 핵심 축이다. 삼성전자의 전체 D램 생산능력은 월 65만 장 수준으로 기존 1c D램 라인은 월 6만장 규모에서 올해 말 20만 장 수준까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HBM4용 증설 물량만 월 11만장 가량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HBM3E에서 경쟁사에 내줬던 주도권을 HBM4에서 만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는 한편, HBM4E와 커스텀 HBM 등 후속 제품 로드맵도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측면에서도 선단 공정 고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화성캠퍼스를 중심으로 하이-NA EUV 장비를 순차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대 반입에 이어 내년 상반기 1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파운드리 경쟁사인 TSMC가 아직 양산용 하이-NA EUV를 들이지 않은 것과 비교해 삼성전자가 2nm 이하 선단 공정에서 선제적 포지션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세대 AI5 칩 설계 완료를 직접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TSMC에 감사를 표한 점도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공개한 시제품 사진 속 'KR2613' 각인을 두고 한국 생산 정황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는 삼성의 2nm 공정 계열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차기 AI6 테이프아웃은 올해 12월로 전망되며 이 역시 삼성전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직 본격 양산 수주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메모리 중심으로 읽히던 삼성 반도체 AI 수혜 기대감이 파운드리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관련 포인트는 실제 고객사 확보와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HBM이 이미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운드리까지 모멘텀이 붙을 경우 삼성 반도체 전반의 회복 기대감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성 반도체 혼풍은 사실상 HBM과 D램 중심이었다"며 "ASML 장비 실적과 머스크 발언이 같은 시점에 겹치면서 시장의 시선이 파운드리까지 옮겨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김민석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 한 단계 도약 전환점”

(국무총리)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통합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정책·사업 콘트롤타워 역할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콘트롤타워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규제 합리화와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위원회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인 제조 역량, 풍부한 의료 건강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결합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간 분리 운영됐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주요 정책·사업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규제 합리화 로드맵은 '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 기본 전략을 토대로 총 2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한국형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적 등재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

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 전략', 'K-뷰티 산업 발전 전략'·'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허브-거점-개별 클러스터가 서로 연결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K-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기존의 산·학·연·병 주체의 투자계획을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정보 통합플랫폼'(가칭)을 구축해 어디서든 연구장비·시설·컨설팅 등 인프라를 공유하고 활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대전·송도·원주 등 주요 8개 거점을 연계하고, 이후에는 전국의 클러스터와 민간 생태계까지 연계를 확장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16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27명 등 모두 44명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차세대 D램 생산 확충 신규라인 증설 이어 기존라인 공정 전환도

가격 상승 흐름과 수요 확대에 맞춰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P4 라인 장비 발주에 착수하며 10나노급 6세대(1c) D램 투자도 본격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에스아이, 씨엔지하이테크, 와이씨 등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파운드리 나노플래시 대신 차세대 D램 생산능력 확충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제품인 HBM4가 기존보다 더 미세한 공정을 요구하면서 10나노급 6세대(1c) D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c D램은 HBM에 적용되며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는 고성능 메모리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평택 신규라인 증설에 이어 기존 화성 P3라인과 17라인의 공정 전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형 공정을 최첨단 1c 공정으로 업그레이드해 전체적인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0조원 투자(시설·R&D) 계획을 확정 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90조4000억원) 대비 약 21.6% 증가한 액수로 사상 이래 최대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삼성전자가 로직 다이 가격을 인상한 것은 TSMC로 물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체 생산 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I 반도체 수요가 강하게 유지되면서 HBM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당분간 공급자 우위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세종 12개 부처, 신용카드 대신 디지털화폐 사용한다

재경부,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하반기에 업무추진비 결제 추진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결제 관련해, 현행 신용카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예금토큰)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세종에 자리한 12개 부처와 위원회·처·청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범사업은 재경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사업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되고 있다.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시 사후 소명을 통해 관리된다.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예금토큰의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올해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세종청사 단지에 입주해 있는 부처 등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각 부처가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하면 사용가능 시간 및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를 통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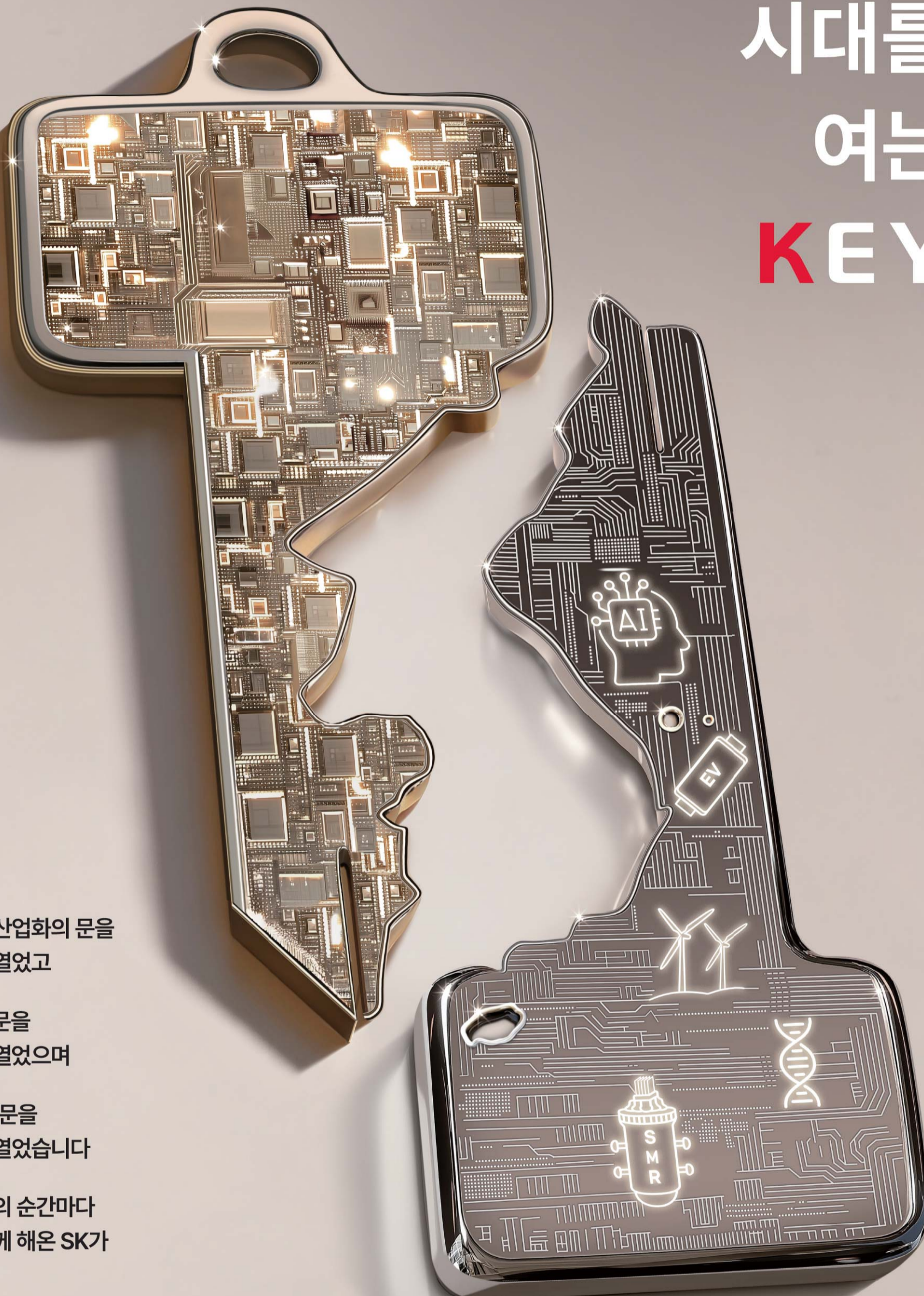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다.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차현정 기자 hyeon@

AI 시대를 여는 KEY



대한민국 산업화의 문을
에너지로 열었고

정보화의 문을
통신으로 열었으며

AI 전환의 문을
반도체로 열었습니다

국가 성장의 순간마다
묵묵히 함께 해온 SK가

**또 한 번 대한민국의
Key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K

교역 2000억달러 목표...李, 인도·베트남 5박6일 순방

인도 총리 초청... 19일부터 2박3일 AI·조선·방산 등 전략 협력 확대

베트남 또렷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 인프라·원전 등 국가 핵심 분야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초청으로 19~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뉴델리를 방문한다. 이번 인도 국빈 방문은 8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 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19일 뉴델리에 도착해 수브라마냐 자이산카르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간디 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2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약식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회담에선 한국과 인도 간 특별 전략적동반자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모디 총리 주최 오찬과 한·인도 경제인 대화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뒤 국빈 만찬으로 인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다.

인도 방문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의

교'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청와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동력 창

출도 기대 성과로 꼽았다. 위 실장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력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AI(인공지능),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물꼬를 트고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24일 3박4일 일정으로 하노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이달 초 출범한 베트남 신임 지도부의 첫 국빈 행사이며, 지난해 8월 또렷 당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답방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하노이에 도착한 뒤 22일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베트남 지도부와 공식 환영식을 갖는다. 이어 또렷 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3일에는 팜민찐 총리와 면담하고, 쯤타인민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한다. 이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과 교류하며 교역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또렷 당 서기장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시찰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베트남 방문 기대 성과로 ▲상호 방문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 구축 ▲한·베트남 전략적 경제협력 고도화 ▲한·베트남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 등이 꼽힌다.

특히 경제 협력에 대해 위 실장은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상호 관심 품목 교역 활성화 조치를 공조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발전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 대통령 "국가, 국민 안전 지키기 위해 존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

현직 최초 세월호 기억식 참석 "국가 책임 강화·신뢰 회복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다시 4월16일이 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말로 다 담아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추모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내기 어려운 마음과 마주하게 된다"며 "12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각인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는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두가 똑똑하게 목도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차관급 정무직·정부위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의원(사진)을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차관급 정무직 및 정부위원회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일 의원연맹 회장과 주(駐)일본대한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지난 1월 이태한 전 수석부의장의 별세로 공석이었다.

이 수석은 인선 배경에 대해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근대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파를 초월해 평화 협력을 추진해 온 국가 원로"라며 "한일 의원연맹 회장, 주일 대사 등을 통해 쌓은 외교적 경험을 통



일 담론에 담아 통합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수석은 "한국 구술사학회, 한국사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한 역사 사회학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국가폭력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한 과거사 규명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위촉됐다. 이 수석은 "한국환경연구원장,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등을 역임하는 등 환경·에너지 분야의 이론과 정책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라며 "기후·에너지·밸류를 아우르는 국가 위기 정책의 대전환을 이끌 전문가"라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 1면 '한국판 국부펀드'서 계속

국산 조달 확대·K-엔비디아 육성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화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토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

선거구 확정 등 정치개혁 법안도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30여 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거구 확정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적용 등이 담긴 정치개혁 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시한인 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 양당은

의했다"며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운영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했다. 이어 "오는 17일(본회의에 앞서) 정계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치개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논의 중인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서양진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득권 양당의 누더기 법안"이라며 "표심을 왜곡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자신들의 의석 점유율만 보존하려는 계산기 소리가 국민에게까지 들린다"고 비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카드 없어도 신청·결제 가능... 회사별 조건 확인하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꿀팁

오는 27일~내달 8일 1차 신청기간

정부가 1인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카드사별 신청 조건과 이용 방식 차이가 부각되고 있다. 1인당 1개 카드사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이후 변경이 불가능해 카드사별 특징에 따라 이용 편의성이 갈릴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1인당 최대 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국내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 개시일에 맞춰 카드사별 앱에 관련 메뉴가 신설될 예정이다.

카드사별로 신청과 이용 조건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NH농협카드는 자사 카드 보유 회원에 한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자사 카드 미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금을 결제에 활용하려면 신청 후 자사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현대카드는 카드 미보유자도 신청과 지원금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각 사 포인트 또는 전자지갑 형태로 지원금을 지원해 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비씨·농협 자사카드 있어야
KB·롯데 카드 없어도 신청가능
단, 결제시엔 자사카드 발급해야
하나·우리·현대 카드 미보유자
지원금 신청, 앱으로 사용도 가능**

도의 실물카드 신청 없이 앱을 통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별 편의점도 각기 다르다.

삼성카드는 계열사 통합 인증과 삼성페이 연동을 통해 간편한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롯데그룹 통합 멤버십과 연동해 계열사 이용 고객

의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인증 없는 지원금 신청을 지원한다.

비씨카드는 넓은 가맹점 네트워크 구축이 특징이다. 전국 8만여 개 가맹점과 네트워크가 연계돼 있어, 비씨카드 '페이북'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우리원(WON) 카드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전자지갑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우리카드 앱 내

전자지갑에 충전된 지원금은 별도의 실물 카드 없이 쿼일(QR)코드 또는 바코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 앱에서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 앱을 통해 포인트 또는 전용 충전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앱 내 '사용 내역' 메뉴에서 남은 금액과 사용 기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솔(SOL)페이 통합 플랫폼에서 신용·체크카드를 모두 활용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국민 70%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소멸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카드 News



삼성카드 김상규 부사장(오른쪽)과 무신사 최재영 부사장(왼쪽)이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카드 무신사 삼성카드 출시

삼성카드는 지난 15일 서울 성수동 무신사 성수N1에서 패션·뷰티 플랫폼 무신사와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상규 삼성카드 전략사업본부장과 최재영 무신사 최고 커머스 책임자(CCO)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삼성카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신사 특화 혜택을 담은 '무신사 삼성카드'를 출시한다. 무신사 삼성카드는 온·오프라인 무신사 스토어 이용 시 추가 적립 등 무신사 회원 특화 혜택을 제공한다. 무신사 주 고객인 2030의 취향을 담은 카드 플레이어도 선보인다.

신한카드-육군본부

군 장병 지원 간담회

신한카드는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육군본부와 군 장병을 위한 복지 및 문화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박창훈 신한카드 사장,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 장희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육군본부는 신한카드가 추진해 온 군 부대 내 '아름인도서관' 설립 등 장병 대상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 지속적인 군 장병 복지 및 문화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는 설명이다.

하나카드, BTS공연 결제 분석 外人 카드소비 555억

하나카드는 최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BTS 공연의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55억원의 외국인 카드 소비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방문객을 3만 명으로 추산한 뒤, 항공·숙박·음식점·편의점·카페·쇼핑 등 전 업종의 1인당 평균 지출을 소비대가 기준으로 합산했다.

공연 기간 외국인 카드 구매자 수도 약 3만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1장의 티켓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인 티켓을 함께 구매하거나 3회차 공연 중 여러 회차를 직접 관람하는 열성팬들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전체 구매자의 32%로 가장 많았고, 대만(12%), 필리핀(7%), 홍콩(5%), 미국(5%)이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국가 비중이 75%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재선 기자

은행·보험 자본규제 푼다... 생산적 금융에 98.7조 지원

금융위, 부동산·가계중심 자금흐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에 투입
은행 74.5조, 보험권 24.2조 확보

금융당국이 은행·보험권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부동산·가계대출 중심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기존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 높은 분야,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며 "보험업은 장기자산 운용이란 업권 특성을 살려 국가 인프라 및 에

너지 전환 등에 대한 장기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여력 74.5조 확대
금융위는 은행권의 자본 규제를 손질해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앞서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특례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향 상향 등 4개 과제를 완료한 바 있다.

금융위는 운영리스크 손실 인식 기준을 합리화한다. 지금까지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발생한 손실이 향후 10년간 운영리스크 산정에 반영돼 은행의 자본비율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일회성 대형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한 경우 내부통제 개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소비자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5대 금융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최대 0.26%포인트(p)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부담을 덜어 기업대출과 산업투자 여력을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권 투자규제 합리화

보험권의 자본규제를 손질해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확보한다. 보험사의 자본부담을 줄여 첨단산업 벤처 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시 위험계수를 49%(비상장주식 등)에서 20%이하로 경감한다.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는 49%에서 상장주식 수준인 35%로 경감한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주식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한 경우에도 투자를 확대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화포레나 단지에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적용

한화 건설부문, E1과 업무협약
하반기 'EV에어스테이션' 도입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15일 에너지 기업 E1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인프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 건설부문 김민석 건축사업본부장과 E1 김수근 영업본부

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주택 충전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EV에어스테이션'의 공급과 기술지원을, E1은 충전시스템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한화 건설부문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E1의 운영 역량이 결합되며, 충전 정보 제공 및 결제·정산 등 입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통합 솔루션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협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화포레나 단지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

한화 건설부문의 'EV에어스테이션'은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

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천장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이다. 바다 설치형 충전기 대비 커넥터 이동 및 걸림 문제를 줄이고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차 위치에 따른 충전 제약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화재감지 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배터리-충전기 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기능이 탑재돼 전기차 충전시설의 주요 과제로 지적되어온 화재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HD현대중, 합병 시너지 키운다

중형선 야드 합정 건조 가시화

HD현대미포 인프라 활용 본격화 중형선 3·4번 도크 합정 배치 검토 블록 공동 제작 등 통합 생산 진행 방산 생산 병목 해소 기대감 커져 합병 이후 현장 시너지 구체화

H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말 HD현대미포와의 합병 당시 제시한 생산·운영 재편 구상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중형선 야드 활용과 생산 인프라 통합 등이 맞물리며 합병 시너지가 구체화하는 흐름이다.

16일 업계와 한국투자증권 보고서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수주할 합정 일부를 중형선 야드 3·4번 도크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이달까지 중형선 29억8000만달러를 수주해 연간 목표의 68.5%를 달성했으며, 2028년 슬롯 50척 가운데 절반 가량을 채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회사가 최근 2029년 슬롯을 열어 중형 석유제품운반선(MR P/C) 일부를 배정할 것을 두고, 상선 일부를 뒤로 미루고 합정 물량 투입을 위한 공간 확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중형선 야드에서 내년부터 특수선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회사 측은 미포의 기존 4개 도크를 활용하기 위한 시설투자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산 인프라 통합 운영도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와 HD현대미포를 합병해 합정·중형선사업부로 조직을 정비했다. 현재는 합정사업본부가 대형시험선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11일 진수한 2400톤급 필리핀 원해경비함 1번함 '라자 솔라이만'함. /HD현대

설계를 맡고, 블록을 공동 제작한 뒤 중형선사업본부가 조립하는 첫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특수목적선 역량을 통합해 사업 기반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합병 당시 제시된 생산 체계 재편 방향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합병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의 방산 생산 병목을 HD현대미포 인프라로 보완하는데 있었다. HD현대중공업은 도크 부족으로 추가 수주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HD현대미포는 4기의 도크와 자동화 설비를 갖춰 중소형 합정·특수선 건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매출을 지난해 약 1조원에서 2030년 7조원, 2035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기술 경쟁력 강화도 당시 제시된 과제다. 회사는 합정·중형선사업부를 중심으로 상선·방산·특수목적선 간 연계를 강화하고, 중

소형선과 대형선 연구개발 역량을 결합해 전기추진·자율운항 기술의 대형선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특수목적선 시장 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제시됐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각각 보유한 실적과 기술을 통합해 쇄빙선과 해상풍력 관련 선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입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와 함께 해외 야드 운영 일원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도 합병 이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회사는 싱가포르 투자법인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 야드를 통합 관리하고,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 해상선 부분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윤현규 국립장원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미포는 원래 7만톤 이하 중형선을 주로 건조해온 야드로, 중소형 합정 건조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metro

HD현대일렉, 친환경 대용량 변압기 기술 입증

460MVA급 英 내셔널그리드 공급 고전압·대용량 친환경 기술력 입증 유럽 전력기기 시장 공략 가속

HD현대일렉트릭이 국내 최대 용량의 친환경 변압기를 앞세워 유럽 전력기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400킬로볼트(kV), 460메가볼트암페어(MVA)급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의 최종 승인 시험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국 전력망 운영사인 '내셔널그리드'의 영국 내 변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 460MVA급은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변압기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고전압·대용량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번 HD현대일렉트릭의 친환경 변압기는 기존 광유 대신 합성 에스테르 절연유를 적용해 발화점을 높이고 화재 위험을 낮춘 제품이다. 절연유가 유출되더라도 자연적으로 분해돼 환경 부담이 적다는 점도 특징이다. 특히 유럽처



HD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국내 최대 용량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HD현대

럼 도심 변전소와 환경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는 이런 특성이 공급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변압기 제작은 대용량일수록 더 까다롭다. 발열 제어와 절연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술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전압·대용량 친환경 변압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제품은 기존 국내 최대였던 200MVA대 제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친환경 전력기기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온실가스인 SF₆(육불화황)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145kV급 고압차단기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했고, 해당 제품은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수주로 이어졌다. 현재는 유럽 시장을 겨냥한 420kV급 SF₆-free 차단기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번 행보는 HD현대일렉트릭의 유럽 시장 확대 전략과 맞닿아 있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전력망 교체,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동시에 SF₆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환경 규제가 도입되면서 친환경 전력기기 수요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실제 HD현대일렉트릭의 매출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북미 매출은 2022년 4259억원(20.2%)에서 작년 1조6149억원(39.6%)까지 증가하며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았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1543억원(7.3%)에서 작년 약 10%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남영 기자 koogja_tea@

삼성중, 美 해군 지원함 사업 박차

GD나스코와 전략 협력

삼성중공업은 제너럴 다이내믹스나스코(GD NASSCO) 경영진이 지난 15일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NGLS) 사업과 양사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GD NASSCO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조선 계열사다. 1950년대 이후 미 해군 지원함과 상선 150척 이상을 인도했으며, 미국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설계부터 건조, 수리까지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선소로 꼽힌다. 현재 미 해군 존 루이스급 유티보급함(T-AO) 20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차세대 잠수함 지원함(AS(X)) 설계도 진행 중이다.

이날 삼성중공업을 찾은 GD NASSCO 경영진은 삼성중공업의 첨단 기술력이 NGLS 개념설계는 물론 향후 건조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설계부터 건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GD NASSCO와 긴밀히 협력해 미 해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효율적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우측)과 데이비드 카버 나스코 사장(좌측). /삼성중공업

인 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양사는 GD NASSCO의 현대화·자동화와 관련한 기술 협력 논의도 한층 구체화하기로 했다.

양사 경영진은 실무 협의 이후 삼성중공업의 최신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내입공장과 안전·도장 VR 체험장을 둘러봤다. 내입공장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해 장비를 원격 운영하고, 로봇이 선박 3D 캐드 모델과 계속 데이터를 인식해 용접을 수행하는 등 삼성중공업의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생산시설이다.

삼성중공업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전환(RX) 기술을 기반으로 한 24시간 자동화·무인화 조선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삼성, 유럽서 'AI TV 대중화' 본격 시동

독일서 '유럽 테크 세미나' 개최 AI 기능 강화한 TV·오디오 선보여

삼성전자는 15일부터 1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웨라톤 공항 호텔에서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TV·오디오 신제품을 소개하는 '2026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

테크 세미나는 글로벌 영상·음향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주요 테크 미디어 및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AI 기술이 적용된 2026년형 신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유럽 시장에 차별화된 AI 스크린 경험을 제시하고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역량을 집결한 통합 플랫폼 '비전 AI 컴패니언'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AI TV 대중화 시대'를 본격 추진한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시청 중인 콘텐츠 정보 제공은 물론, 여행 계획 수립·음식 레시피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TV의 역할을 스마트 홈의 중심 허브로 확장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정밀한 색 표현과 깊이감 있는 화질을 구현하는 '마이크로 RGB' TV를 앞세워 화질과 성능을 중시하는 유럽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이번 행사에서는 색역 지표 비교와 로컬 디밍 기술 시연을 통해 차별화된 화질 경쟁력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500Hz 초고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게이밍 모니터(FG600S)와 6K 해상도 모니터(G80HS), 새로운 와이파이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7·5'도 선보였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이현 부사장은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전 라인업에 고도화된 AI 기술을 적용해 모두를 위한 'AI TV 대중화'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LS비나, 230kV 초고압 케이블 美 인증

美 전력 프로젝트 납품 자격 확보

LS에코에너지는 LS비나가 글로벌 공인 시험기관 KEMA로부터 230kV급 초고압 케이블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미국 전력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규정(CS9)을 충족해 취득한 것으로 이를 통해 LS비나는 미국 내 대형 전력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납품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북미 전력 시장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과 노후 송전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 송전 인프라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약 79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의 경우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검증이 필수적인 만큼 인증을 확보한 글로벌 공급업체 중심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형성되고 있다.

LS비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 경쟁을 바탕으로 초고압 케이블 경쟁력을 강화해 왔으며 북미까지 대응 가능한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사업을 확대 중이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인증은 LS에코에너지가 북미 시장까지 대응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력망 투자 확대에 맞춰 시장 공략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中企 통합플랫폼’ 접속 한 번으로 중기부 모든 지원사업 간편 신청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 발표
중소·소상공인 접근성 강화 위해
유관기관 시스템, 하나로 통합
AI로 신청서·계획서 작성 지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 AX 전환을 통해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 데이터 활용, 내부 정책 집행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중기부 공공 AX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 달 시범 오픈 예정인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에 한번만 접속하면 모든 중기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통합 로그인뿐 아니라

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 관리 등 실제 체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와 유관기관의 시스템들도 기능별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이 과정에서 AI를 적극 활용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관심 공고, 상담 기록 등 개별 데이터를 학습해 지원사업 맞춤 추천, 상권 분석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사업 공고 시점, 신청 절차 등 정보를 안내한다.

특히 정책자금 신청서와 연구개발(R&D) 계획서 작성까지 지원에 신청 과정의 부담을 크게 줄일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제2회 OpenDataX AI 챌린지)를 확대한다.

프로젝트 참여 스타트업에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PoC) 자금 및 개발 인프라(그래픽

처리장치 등) 등을 지원한다. 우수 결과는 본 계약으로 연계해 실제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참가자에게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 대상 AI 도구 활용 교육, 맞춤형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와 유관기관 내부적으로는 보유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반복단순 업무는 자동화해 행정부담을 줄인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AX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서비스 접근부터 사업 신청, AI 활용, 정책 집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대한 개방해 혁신 서비스를 지속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워커힐, ‘AI 호텔’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SK네트웍스 효자사업으로 각광
프린트·백오피스 등 AI 생태계 구축
오프라인서도 고객 AI 경험 확장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워커힐)가 2023년 턴어라운드 이후 지속적인 매출 증가 및 탄탄한 수익력을 보이며 SK네트웍스의 효자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와 인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호텔 산업 문법에서 벗어나, AI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접목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워커힐만의 차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개관 63주년을 맞은 워커힐은 ‘AI 호텔’ 전환을 본격화하며 프린트 서비스부터 백오피스까지 전방위적 AI 생태계를 구축했다. 대표 사례인 ‘워커힐 AI 가이드’는 ChatGPT-4o 기반 다국어 안내 서비스로, 도입 1년 만에 이용자 3만명을 넘기며 FIT 고객 3명 중 1명이 사용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동선 추천, 메뉴 안내, 예약 연동 등 개인화 기능이 강점이다.

오프라인에서도 AI 경험을 확장하고 있다. ‘워커힐 AI 라운지’에서는 고객이 AI 안내에 따라 호텔 내 예술 작품을 체험하는 ‘아트 미션’을 수행하며 디지털과 현실이 결합된 경험을 제공한다. 와인 행사에는 AI 도슨트 ‘픽 와인 업’을 도입해 개인 취향 기반 추천과 시음 동선을 제시했다.

내부적으로는 AI 기반 업무 시스템 ‘와이즈’를 통해 매출 데이터를 기존 30~40분에서 1분 내 조회할 수 있도록



그랜드 워커힐 서울 1층 로비에 마련된 ‘워커힐 AI 라운지’.
/SK네트웍스

선택했다. 단순 업무를 줄이고 직원들이 고객 서비스에 집중하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하드웨어 경쟁력도 강화했다. 골프연습장을 리노베이션한 ‘워커힐 골프클럽’에는 스윙 분석기와 AI 피팅 센터를 도입했으며, 테니스 시설 ‘테네즈 파크’,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 웰니스 프로그램 등 체류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종 산업과의 융합도 눈에 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협력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셔클’을 도입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험 중이다.

유통 영역에서는 모바일 앱 ‘워커힐 스토어’를 통해 김치·HMR 등 PB상품을 판매하며 D2C 구조를 구축했다. ‘워커힐호걸 김치’는 미국과 호주 등으로 수출되며 글로벌 확장도 이어가고 있다.

워커힐은 향후 ‘WISE 2.0’을 통해 내부·외부 데이터를 통합하고, AI 가이드를 예약까지 가능한 종합 에이전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로봇틱스 기반 이동 서비스와 프리미엄 김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대한전선, 초고압·해저케이블 사업 강화

1분기 매출 15%·영업익 44% 증가 전망
실적개선, 초고압 프로젝트 매출 영향
대응 위해 당진에 해저 2공장 건설

대한전선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케이블 중심의 사업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고수익 초고압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증설과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이 맞물리며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올해 1분기에도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대한전선의 1분기 매출을 9879억원, 영업이익을 39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48%, 44.03% 증가한 수준이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360억원, 영업이익 1286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주잔고도 3조6600억원으로 사상



대한전선 당진해저케이블 2공장 조감도.
/대한전선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실적 개선 배경으로는 수익성이 높은 초고압 프로젝트의 매출 반영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수주한 고수익 초고압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턴키 비중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다. 글로벌 전선 시장은 당분간 공급자 우위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증

설, 노후 전력망 교체,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초고압 케이블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선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당진에 해저 2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공장에는 640킬로볼트(kV)급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400kV급 초고압교류송전(HVAC)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여경협, 펠테크 기술보유 25개사 지원

이달 30일까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이달 30일까지 펠테크 산업 육성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펠테크’란 여성(Femal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여성을 위한 기술, 상품, 서비스를 말한다.

16일 여경협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달 초 씨엔티테크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협약체계를 끝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여경협이 주관한다.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펠테크 기술 보유 기업 25개사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사업지원금 지원, 교육·멘토링·IR 프로그램 참여, 국내외 전시출전, 모태펀드·VC 후속투자 연계 등 펠테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시행한다.

사업지원금은 제품 및 기술 수준과 사업성에 따라 기술선도형과 기초응용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HMM, MA2 서비스로 스페인-서아프리카 잇는다

대형선, 핵심거점 항만 간 운송
피더선, 거점 중심 지선망 구축

HMM이 7월부터 스페인과 서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MA2(Mediterranean West Africa)’를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HMM은 ‘2030 중장기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허브앤스포크(Hub&Spoke)’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형선이 유럽 등 원양 항로의 핵심거점 항만(Hub) 간 운송을 책임지던,

피더선(Feeder Ship)이 그거점을 중심으로 지선망(Spoke)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원양과 근해 항로 사이에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MA2 서비스는 이러한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구체화한 지선망으로, 지중해 핵심거점 항만인 스페인 알헤시라스를 중심으로 서아프리카 주요 항만들을 연결한다. 특히 성장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항하지 않던 아프리카를 연계함으로써 대화주 서비스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리미어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일본 ONE와 공동 운항하는 이번 서비스는 7월 둘째 주 알헤시라스에서 시작되며, 2800 TEU급 컨테이너선 5척이 투입된다. 왕복 35일이 소요되며, 기항지는 알헤시라스-탕헤르(모로코)-다카르(세네갈)-테마(가나)-레키(나이지리아)-아비장(코트디부아르) 순이다.
/양성운 기자 y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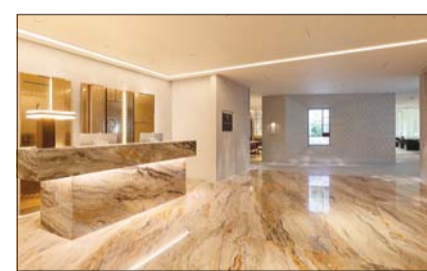
대한항공, 통합 앞두고 라운지 2곳 재단장

‘내 집 같은 편안함’ 컨셉으로 조성

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치한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와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 리뉴얼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 일등석 라운지는 250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17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는 248-249번 탑승구 맞은편 4층에 위치하며 16일 오전 4시부터 고객들을 맞이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항공기 탑승 전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서편 라운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내 집 같은 편안함’을 컨셉으로 공간을 조성했다. 식음료(F&B)와 부대시설을 강화해 기존 라운지와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AIDC 특별법, 상임위 통과... 규제 풀고 AI 인프라 속도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력 경쟁력 확보 위한 제도 마련
PPA 범위 천연가스까지 확대
비수도권만 혜택... 역차별 논란도



전력 규제를 완화해 AIDC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가산 AI DC에서 SKT 직원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SKT

전력구매계약(PPA) 특례를 골자로 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번 법안은 글로벌 AI G3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의 핵심 전략으로, AI산업의 심장인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대 병목인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법안은 전력 규제를 완화해 AIDC 구축 속도를 끌어올리고 글로벌 수준의 전력 조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의 핵심은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에 한해 과격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제공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력구매계약(PPA) 범위를 기존 재생에너지에서 천연가스(LNG)까지 확대한 특례 도입이다. 이를 통해

AIDC 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맺을 수 있게 돼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AI 인프라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비수도권 AIDC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인허가 절차에 '다임아웃제'를 도입해 구축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행정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전력 확보 속도

전'에 돌입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인근에 LNG 발전소를 직접 짓거나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활용하는 등 전력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과방위는 당초 1년이었던 법안 시행 시기 또한 9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입법 추진의 배경에는 국내

AIDC 사업 대다수가 전력과 입지라는 핵심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2개 AIDC 건설 사업 계획 중 전력 인프라와 입지 적합성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우수 사례는 단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AIDC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26.6%의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수용성 문제로 인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경우 국가적 성장 기회를 타국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부처 간 이견과 사회적 논란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시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전력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부는 LNG 발전을 PPA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LNG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탄소 배출이 발생하는 화석연료이며, 이를 직접 계약으로 묶을 경우 전력계통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번 특별법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환경 규제와 공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특혜 패키지'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존재한다. 비수도권에 집중된 혜택이 정작 수요가 몰려 있는 수도권 기존 데이터센터의 AIDC 전환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하이퍼스케일급 AIDC는 지방으로 유도하더라도, 저지연 통신이 중요한 수도권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원화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을 받아 쓰는 구조만으로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력 확보 방식 자체를 다변화하고 데이터센터와 발전 설비 연계를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기후부에서 이야기 하듯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증가하는 구조가 되는 원전과 석탄 등 자원이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조 투입한 GPU 사업, 대기업 쏠림 논란

정부, 안정성 이유로 대기업 선호
업계 "정책 방향 전환 필요" 지적



AI가 만든 GPU 사업 관련 이미지.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 2조원 GPU 사업을 계기로 정부 AI 인프라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진행된 2조원 규모 GPU 확보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삼성SDS, 쿠팡, 엘리스그룹 등 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과 함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대규모 GPU를 확보해 산학연에 공급하는 구조다. 향후 국내 AI 연산 인프라와 시장 경쟁 구도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의미가 크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안정성을 이유로 대기업을 선호하는 구조가 이번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격 경쟁력도 의문"...구조 재검토 필요

다만 이러한 선택이 반복될 경우 기술 혁신과 가격 경쟁 측면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고려해 대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되면 기술 혁신 속도가 시장 요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해외 장비를 도입해 외주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비용 중심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단순히 비용을 투입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가격 효율성 측면에서도 최적의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계에서는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공 클라우드 사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기업 중심 구조가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용 구조 자체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해외는 스타트업 중심...기술 기업에 기회 열어야

반면 해외에서는 기술력을 앞세운 스타트업들이 AI 인프라 시장을 빠르게 주도하고 있다. 실제 코어위브, 크루소, 엔스케일, 네비우스 등은 설립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AI 연산에 특화된 클라우드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며 기존 빅테크 중심 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러한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생태계가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난다.

업계는 국내 역시 기술 기반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도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단순히 안정적인 사업자를 선택하는 시점이 아니라, 미래 AI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시점"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정책적 도전을 통해 혁신 기업에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누가 사업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미래 AI 인프라를 주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점"이라며 "안정성에 머물지, 혁신으로 같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故 김광한 DJ 목소리, 인공지능으로 복원

일레븐랩스, 라디오 특집서 공개
출처 확인 '국제 표준 C2PA' 적용

일레븐랩스는 경인방송 '박현준의 라디오가가' 20주년을 맞아 지난 3일(故) 김광한 DJ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해 방송에 활용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특집 방송에서는 AI 음성 클로닝 기술로 재현된 김광한 DJ의 음성이 송출됐다. 복원된 음성은 생전의 톤과 진행 스타일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프로그램 진행자 박현준 PDJ와 청취자들에게 과거 방송을 환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생성형 AI 콘텐츠의 출처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표준 C2PA가 적용됐다. 음성 데이터에는 AI 생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포함돼 콘텐츠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특집 방송에는 밴드 잔나비가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진행했으며, 방송 중 공개된 AI 음성에 대해 박현준 PDJ는 "선생님(김광한 DJ)이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음성 복원은 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일레븐랩스는 해당 기술을 미디어 및 문화 콘텐츠 분야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엔터, 신작 웹툰 4종 출격

노블코믹스·SNS 웹툰까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4월을 맞아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을 통해 신작 웹툰 4종을 선보이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라인업은 인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노블코믹스와 SNS에서 화제를 모은 작가의 신작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다. 플랫폼별 특성에 맞춘 작품을 통해 이용자층 확대를 노린다.

지난 11일 카카오페이지에 공개한 '나 혼자 EX급 소환수'는 조회수 3000만회를 기록한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판타지 작품이다. 교통사고 이후 3년 만에 깨어난 주인공이 게임 세계가 현실화된 환경에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소환수를 활용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스튜디오 이너스가 제작을 맡았다.

같은 플랫폼에서 지난 1일 선보인 '힘을 숨기고 즐기는 평화로운 하녀 생활'은 로맨스 판타지 장르 작품으로, 공개 직후 주간 랭킹 상위권에 올랐다. 전쟁 영웅이 여성으로 환생해 하녀로 직장 취업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박귀리 작가의 원작을 바탕으로 마페 작가가 작화를 맡았다.

카카오웹툰에서는 SNS 기반 콘텐츠를 확장한다. 오는 30일 공개하는 '루나파크 일인용 우주'는 인스타그램 기반 콘텐츠로 화제를 모은 루나 작가의 신작이다. 전세 사기 경험을 다룬 전작 이후 후일담과 일상 이야기를 담아 현실 공감을 강화한다.

/최빛나 기자

박현주 '글로벌 베팅' 재가동... 미래에셋, 日·호주 해외 확장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법인 이익 급증 확장 가속
日 WM·호주 연금시장 공략
9년 만에 신규 해외법인 추진
홍콩 디지털자산 사업 개시
미래에셋 3.0 전략 시동



박현주 회장이 주도하는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실적을 기반으로 일본·호주 진출을 추진하고, 홍콩을 거점으로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미래에셋 3.0'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국경 없는 투자’를 외쳐온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다시 움직였다. 해외에서 성과를 확인한 미래에셋증권이 일본과 호주로 확장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본과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의향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2017년 인도 진출 이후 약 9년 만의 신규 해외 법인 확장이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성과 위에서 이뤄진 ‘다음 단계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법인에서만 498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이익의 약 24%를 차지한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박 회장이 강조해온 ‘국경 없는 투자’ 전략이 성과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은 현재 홍콩,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등 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복수 법인을 포함하면 총 1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공략하는 일본과 호주는 ‘수익

형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본은 2024년 신NISA 도입 이후 개인 투자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며 리테일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WM)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어뉴에이션 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자산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

는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호주를 거점으로 연금 기반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산운용 부문이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도 증권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글로벌X재팬이 ETF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고, 호주 역시 글로벌X호주와 스타크릿을 통해 현지 투자 생태계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운용 인프라가 증권 부문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확장은 디지털자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미래에셋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첫 실행 무대로 홍콩을 선택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았다. 국내 금융사 중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홍콩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중개가 가능해졌으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거

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홍콩은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는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중국 본토의 가상 자산 규제 이후 관련 자금과 기업이 유입되며 ‘통제된 개방’ 모델을 구축한 점도 미래에셋 전략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홍콩 사업을 시작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시장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금융과 Web3 기반 자산을 연결하는 ‘원 플랫폼’ 전략을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6월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기대감과 디지털 자산 모델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이억원 “중복상장 엄격 심사... 주주보호 충실의무 다해야”

〈금융위원장〉

16일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서 축사
엄정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주주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

강조했다.

주주 충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성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복상장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자본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

우가 보편적”이라며 “법적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로 인해 이사회가 짊어지는 법적 책임을 사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국 대비 그 비율도 여전히 크게 높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예외 허용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목적과 효과인 만큼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 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피 뛰는데 외국인 43조 팔았다... 셀 코리아 경고

금감원, 3월 투자동향 발표
주식시장 3개월 연속 순매도
유럽·미주·아시아서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43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6100선을 회복하는 등 지수 상승 흐름과는 달리 수급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3조55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전월(19조558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기준 최대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84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 보유 규모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576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 역시 30.7%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중동에서만 20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을 뿐, 유럽(26조4000억 원), 미주(9조8000억 원), 아시아(5조60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16조3000억 원), 미국(9조5000억 원) 등이 순매도 상위을 차지했고, 카타르

(5000억 원), 케이맨제도(3000억 원)는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금 이탈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442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16조3590억 원을 만기상환 받으면서 총 10조9160억 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에서 9000억 원 순투자를 보인 반면 아시아(7조원)와 유럽(3조4000억 원)에서는 순회수가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 원, 통화안정증권 2조2000억 원에서 모두 순회수가 발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

삼성운용, 신재생에너지 ETF 수익률 1위

1개월 13.1%·3개월 48.6% 기록
최근 한 달 개인순매수 327억 몰려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원을 무기화한 이번 전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탈석유 기조가 강화된 점,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신재생에너지 ETF가 1개월 수익률 13.1%, 3개월 48.6%를 기록하며 국내 상장한 에너지 ETF 11종(레버리지 제외)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비교지수(31.5%) 대비 17.1%포인트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 이 ETF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통상적인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모든 친환경 기술 및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수익률 고공행진에 투자금도 증가해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는 327억원에 달한다.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2021년 상장 후 수익률 369.7%를 기록했다.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사이트(On-site) 발전원 관련 기업 비중 확대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비나텍 등 미국향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공공부문서 착취적 다단계 하도급 퇴출... 2년 고용 보장도

노동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사전심사제로 가격 적정성 따져
단순 노무 최저 낙찰하한율 2%p↑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가 임의로 하도급을 주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2년 이상의 계약 기간이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6개 분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적정하게 도급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동일·유사 업무 중사자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중간 삭감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2차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원도급사는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이 허용된

다. 이를 위해 '하도급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원도급사가 운영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필요성과 가격의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하도급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점에 하도급 활용의 적정성을 엄격히

따져 불필요한 하도급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순 노무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재보다 2%p포인트 상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낙찰하한율은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역할"이라며 "이번 상향 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히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임금이나 퇴직급여 외에 일반관리비나 이익잉여금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전 공공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을 확대해 임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급계약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 역시 도급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 1년 이하 단기 계약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방침이다.

도급업체 변경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약속서'

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모든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개최된 '2026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농협

농협 "정부 협력 통해 쌀 수급 선제적 조절"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농협이 올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쌀 수급의 선제적 조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쌀값 안정화를 위한 '2026년 농협 비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6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총회에서는 ▲정부 비 매입자금 지원방안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농가 경영안정 대책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양곡 수급현황 및 가격동향 등을

공유했다.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 비 전국협의회장(충남 홍성 광천농협 조합장) 등 전국 130여 명의 조합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도 참석해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적정 쌀 재배면적과 논 타작물 면적을 통해 쌀 수급균형에 노력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협과 농업인 등 시장주체 간 협력 및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합천댐에 수상태양광 시설 조성

국내 첫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RE100 모델 태양광 사업 추진
총 사업비 366억... 연말 준공

한국서부발전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모델'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4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미 가동 중인 합천 1단계(41.5MW)의 후속 프로젝트로, 경남 합천댐 수면에 21MW 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366억원으로 올해 연말 준공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업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서부발전과 수자원공사가 각각 약 18억원과 37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며, 향후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4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주간 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오규명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왼쪽 네 번째)과 오봉근 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본부장(다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프로젝트 금융(PF)을 통한 추가 사업비 조달과 마을법인 설립 지원, 건설 공정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수상 태양광과 직접 전력거래(PPA·Power Purchasing Agreement) 방식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수출 기업인 롯데케미칼에 공급되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직접적으로 돕게 된다.

또 발전 수익의 일정 부분은 마을법인

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공유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규명 서부발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합천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국내 최초의 공공주도 RE100 태양광 사업"이라며 "국가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물론 수출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아파트 전기차 충전 운영체계 개선

공동주택 완속충전기 문제점 파악

정부가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및 운영구조'의 개선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공동주택 완속충전기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방식 전환을 현장 실정

에 맞게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 사양 등을 논의했다.

기후부는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방안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 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사람' 미래 경쟁력 핵심 요소... 교육·인사 체계 혁신"

근로복지공 인재개발원 15주년 새로운 비전 '인재중심경영' 제시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아 '인재중심경영'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며 인재개발 혁신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인재개발원이 개원 15주년을 계기로 '탁월한 실력, 단단한 마음, 일하는 사람을 위한 인재플랫폼'을 새 비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은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사람'을 강조하고, 교육·인사 체계를 전면 혁신하겠다

는 의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인재 육성체계를 도입한다. AI 역량 교육을 ▲전 직원 대상 기초 교육 ▲실무자 중심 심화 교육 ▲관리자 중심 리더 교육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교육을 20년 이내 모듈형 콘텐츠로 제작해 필요 시 즉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현장 직무교육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힐링형 교육' 도입이다. 공단은 모든 집합교육 과정에 휴식과 심리회복 프로그

램을 결합해 배움과 회복이 함께 이뤄지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증가하는 업무 부담과 피로도를 고려한 조치다.

공단은 '비움(Healing)'을 통한 채움(Learning)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혁신은 인사제도 개편과도 연계된다. 공단은 역량 중심 승진제도를 도입해 교육·평가·승진이 연결되는 직무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G-ROUND ART FAIR 2026

9.17

9.20

성도컨벤시아
101타워

Beyond Art

예술을 넘어서... 후미리즘이 되다

글로벌 그라운드 아트페어 2026

| 주최 세계일보 | 주관 GAF조직위원회 | 후원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KOREAN FINE ARTS ASSOCIATION 문의 : 02-6743-3303

개봉동이 달라진다... 42층 랜드마크·853세대 대단지 조성

서울시, 최고 42층 스카이라인 구축 용도지역 통합하고 용적률 완화 고척로 6~8차로 확폭 등 교통 개선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한 구로구 개봉동 120-1 일대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최고 42층, 853세대 규모의 보행생활권 중심 재개발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구로구 개봉동 120-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부순환로와 고척로 교차점에 위치해 광역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매봉산과 고척근린공원, 계남근린공원 등 우수한 녹지 및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197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데다 기반시설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상지 내 흔재돼 있었던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조정되고, 용적률 완화(20%) 및 사업성 보정계수(2.0) 등이 적용돼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먼저 개봉1동사거리 일대 최고 42층 규모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생활권 중심부에 상징적 경관타워를 배치, 지역의 중심 경관을 형성한다. 또 매봉산에서 고척근린공원을 잇는 폭 30m의 열린 통경축을 조성해 개방감 있는 도시경관과 녹지 연결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사거리 생활권 중심부에는 상징경관형 타워와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

합주동을 배치하고 세곡초 연결부에는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단지 내 단차 발생 구간에는 테라스형 주동, 남부순환로변에는 직각 배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건축 배치를 계획했다.

대상지 주변으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남부순환로로 동·서 간 단절된 보행구간을 공공보행통로로 연결하고 '생활권 순환녹지 보행

체계'를 완성, 개봉·고척을 보행일상권으로 연결한다.

또 세곡초에 접한 고척로33길 주변은 방과후교실, 작은도서관, 돌봄시설 등 교육·돌봄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고척로와 생활권 중심부에는 저층부상가를 도입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양한 세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공공시설을 도입하는 한편,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해 고척로를 기존 4~6차로에서 6~8차로로 확폭하고 남부순환로 접속부 교통운영체계를 정비하는 등 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세곡초 인근에는 공원을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개봉1동사거리 교차로변에는 생활권 중심 저층부상가와 어우러지는 개방형 공원을 조성한다. 고척로변에는 시니어교육실, 디지털교육실 등 공공시설을 계획해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노후 하수관로를 이설·재설치해 지역 내 배수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 집중호우

시 빗물처리 능력을 높이고 침수 위험을 낮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개봉동 120-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구역지정'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매봉산에서 고척근린공원까지 녹지와 보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개봉·고척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돼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올해 중 구역지정을 시작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 과정 및 건축 시뮬레이션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주택→신속통합기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아이들 방학 점심까지 책임진다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시행 돌봄 확대 등 5년간 약 2조 투입

서울시가 올여름방학부터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의 점심까지 챙기는 '방학 점심캠프'를 시작한다. 아침·야간·주말 돌봄을 확대하고, 조부모 돌봄수당과 서울런 지원도 넓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현실적 돌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조8796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지역사회에서 아동돌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를 2030년 총 1258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아동센터'를 기존 419개소에서 2030년 450개소까지 확충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 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권역별로 개별 지역아동센터들을 지원하고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해 서울 전역에서 균일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자치구·민간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시설까지 통합·연계해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라는 방과 후 돌봄 통합 브랜드로 도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404개소까지 확충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이주배경 보호자 학교참여 지원

AI 통역·16개 언어 소식지 제공

낮은 언어와 교육제도 장벽으로 자녀 학교생활을 돕기 어려웠던 이주배경 보호자를 위해 서울교육청이 학교 참여 지원에 나선다. 학부모 대상 학교 이해 교육부터 다국어 정보 제공, 상담과 지역 연계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보호자를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통해 언어 장벽 없는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교육청은 중도입국·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 대상 자녀 양육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자의 학교 이해와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가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연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연 10회 내외로 진행되며, 전·편입 학생 보호자에게는 참여를 안내하고 희망 보호

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이해 ▲가정 내 학습지도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소통 및 지역 교육자원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대면 교육 시에는 AI 기반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언어권 보호자의 참여를 돕는다.

다국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총 16개 언어로 제작되는 '다가감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도 진행된다.

김천홍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던 보호자들이 학교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녀교육의 동반자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성장과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390억 들여 농업계 경영난 해소

포장재 지원하고 저리 대출

경기도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 및 농식품 생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지원과 저리 대출 등 총 390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농어업 분야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포장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산물·식품 제조업체의 경영 부담

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선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농산물 포장재 지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등 4개 사업을 통해 총 40억 원 규모의 포장재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수출 경쟁력 유지와 함께 신선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양희종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출용 파우치 등 포장재 가격이 20% 이상 상승했고, 물류비 역시 베트남 25%, 튀르키예 150%까지 급등했다"며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제품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업농촌진흥기금 350억 원 규모의 '농어업 긴급경영자금 저리 대출'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성남시, 40개 기업 참여 '채용박람회' 개최

구직자 맞춤 컨설팅 등 운영

성남시가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대규모 채용의 장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6 성남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디에스피, 블레스모터스, 엠에스티씨, 파리크라상, 농협유통 등 40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총 23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성남시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날 오후 1시 시청 1층 누리홀에서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삼균 교수가 'AI 활용, 취업 성공의 지름길'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강연에서는 미래 기술 트렌드와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취업 전략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구직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성향검사와 AI 기반 심층면접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성남(경기)=유진재 기자 yujin@

배달포화·가격 부담에 치킨시장 ‘정체’... 브랜드 쏠림 심화

최근 1년 3조2498억 시장 제자리 원가상승 겹쳐, 가성비 경쟁 본격화 BHC·굽네 약진, 브랜드 판도 변화 교촌 선방·BBQ 주춤, 상위권 희비

배달 시장 포화와 가격 저항선에 부딪힌 치킨 시장이 '제로섬(zero-sum)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 전체의 파이는 정체된 가운데, 상위권 중위권의 판도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 '국민 야식' 치킨의 위기

오랜 시간 한국인의 영혼을 달래주던 치킨 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말 저녁과 야식을 책임지는 대표 메뉴라는 위상은 여전히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과 외식 카테고리 간의 치열한 경쟁이 수요의 발목을 잡았다.

16일 엠브레인 구매데이터의 실구매 추정 분석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국내 치킨 업종의 최근 1년(MAT) 구매 추정액은 3조 24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초 성적표는 더욱 무겁다. 2026년 1~2월 누적 구매 추정액은 약 50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했다.



Chat GPT로 생성된 올 1~2월 기준 금·토·일요일 치킨 구매액 비중은 전체의 54.0%로 절반을 넘겼으며, 오후 5시부터 10시 사이의 구매 비중은 70%를 상회했다.

단체 회식을 제외한 개인 외식 실구매 기준을 고려할 때 가계 소비 위축이 치킨 구매 감소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BHC·굽네 '미소', BBQ '주춤'

전체 시장이 정체된 상황에서도 브랜드별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로운 수요 창출이 어려워지자 '남의 파이'를 뺏어오는 점유율 뺏기 싸움이 본격화

된 것이다.

BHC 치킨은 올해 1~2월 기준 구매 추정액이 전년 대비 24.9%나 급증하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교촌 치킨은 -2.1%로 소폭 감소하며 선방했으나, BBQ는 25.7% 급감하며 상위권 내 순위 변동의 고비를 맞았다.

중위권의 굽네치킨은 전년 대비

35.4%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브랜드 순위를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끌어 올렸다. 가성비를 앞세운 가마치통닭 또한 13.7% 성장하며 'TOP 10'에 신규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면서 브랜드 충성도보다 가성비와 메뉴의 차별성에 따라 소비자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이제는 덩치 키우기보다 브랜드 매력도를 높여 기존 수요를 사수하는 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굽네치킨의 비결은 '치킨의 식사화' 전략에 있다. 굽네치킨은 최근 스테디셀러인 치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식사형 사이드 메뉴 '치킨 베이크'를 출시하며 고물가 시대 가성비 중심의 간편식 수요를 정조준했다.

◆ 공식이 된 '주말 저녁엔 치킨'

소비하는 브랜드는 바뀌어도 소비하는 시간대는 여전히 그대로 나타났다. 치킨이 여전히 주말과 저녁 시간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메뉴라는 점이다.

올 1~2월 기준 금·토·일요일 치킨 구매액 비중은 외식 비용 전체의 54.0%로 절반을 넘겼으며, 오후 5시부터 10시 사

이의 구매 비중은 70%를 상회했다. 일상적인 식사보다는 여유로운 주말 저녁을 즐기기 위한 보상 심리가 치킨 소비를 지탱하고 있는 셈이다.

◆ 원가 상승 악재 어찌나

브랜드 간의 치열한 순위 다툼 이면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원가 상승'이라는 대형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최근들어 치킨의 핵심 원재료인 닭고기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9~10호 닭의 공장가격은 kg당 5308원으로 전년 대비 13.1% 상승했다. 부재료 상황도 마찬가지다. 하림, 마니커 등 주요 공급사들이 제품가를 5~10% 인상했으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배달앱 판매가를 올리는 등 '치킨 값 인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당분간 업계의 수익성 방어와 가격 전략을 둘러싼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익숙한 소비 패턴 속에서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차별화된 마케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말했다.



ree6834@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색다른 경험 넓힌다

스타벅스 리저브 광화문과 협업 시그니처 칵테일·전용 굿즈 선봬 프리미엄 소주 저변 확대 나서



하이트진로가 스타벅스와 협업해 칵테일을 선보인다.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가 스타벅스와 손잡고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의 이색 음용 경험 확산에 나선다. 프리미엄 소주와 프리미엄 커피 매장의 결합을 통해 증류식 소주 시장 저변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업은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인 스타벅스 리저브 광화문의 시그니처 칵테일 '광화문 믹사토'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광화문 믹사토는 스타벅스가 광화문을 모티브로 개발한 칵테일로, 일품진로를 활용해 한국적 상징성을 더한

메뉴다. 히비스커스 티의 붉은색과 블루 라임의 푸른색이 층을 이루며 태극

문양을 연상시키는 비주얼이 특징이며, 알코올 도수는 8.2도다. 해당 메뉴는 리저브 광화문 매장 내 칵테일 바 'BAR MIXATO'에서만 판매된다. 스타벅스가 국내 주류 브랜드와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이트진로는 협업을 기념해 광화문 믹사토 전용 하이볼잔과 '광화문 자개 코스터' 굿즈를 제작해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용 하이볼잔은 일품진로 병의 세로 줄무늬(플루티드) 디자인과 사각형 윤곽을 반영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다.

굿즈 증정 이벤트는 오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리저브 광화문 매장에서 진

행한다. 자개 코스터는 전통 자개 공예에서 영감을 받아 광화문과 일월오봉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증류식 소주 일품진로를 활용해 한국적 상징성을 담은 광화문 믹사토가 국내외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품진로의 품질과 새로운 음용 방식을 알리기 위해 협업을 기획했다"며 "프리미엄 소주 시장 확대를 위해 다양한 브랜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카스

"오천만 합성을 하나로"

FIFA 월드컵 2026 스폰서 본격화

카스가 2026년에도 FIFA 월드컵의 공식스폰서로서 TV광고, 응원 이벤트 등 오천만 국민의 합성을 하나로 모을 다양한 월드컵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카스는 국내 주류 브랜드 유일의 FIFA 월드컵 공식스폰서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순간마다 함께 해온 국가대표 맥주 브랜드다. 최근 모임 등 단체 활동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도 모두를 하나로 잇는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통해 카스는 '함께하는 응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카스는 6월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사전 분위기 조성을 비롯해 경기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에도 전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전개한다. 직관 티켓 추첨 이벤트, 월드컵 TV광고, 한정판 카스, 굿즈 출시는 물론 지역 상권과의 협업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벤트도 기획 단계에 있다.

카스는 지난 15일부터 카스 프레시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현지 직관 기회를 추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당에서는 카스 생맥주 또는 병맥주를 구매한 뒤 매장 내에 비치된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응모 페이지에 접속해 구매 제품을 촬영·인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신원선 기자



카스가 FIFA 공식스폰서로 월드컵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오비맥주

현대백, '로봇 태권브이' 50주년 특별전

가족 체험형 콘텐츠 강화

현대백화점이 국내 최초의 로봇 만화 영화 '로봇 태권브이'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미아점 10층에서 '우리들의 영웅 로봇 태권브이 5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2m 높이의 대형 피규어를 비롯해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 100여 점과 김치기 로봇 태권브이 감독의 '영웅 산수화' 5점을 선보인다. 영웅 산수화는 태권브이와 전통 산수화가 결합된 작품으로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일상을 담은 산수화 속에 태권브이가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와 연계된 체험 활동도 마련된다. 블록으로 나만의 태권브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블록 존', 다양한 태권브이 모양을 색칠해 볼 수 있는 '컬러링 존', 태권브이 만화책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라운지', 문방구 앞 구역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테트로 존', 볼풀 공으로 채워진 '볼풀 존' 등 총 5가지 공간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높이고, 어른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로봇 태권브이 굿즈 상품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와 프라모넬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10% 할인해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아족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형 RC 로봇인 '태권브이 테크닉스 RC 휴머노이드' (129만원), '풀액션 태권브이 프라모넬' (3만 8000원)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때 이른 더위에 냉방가전 수요 '급증'

롯데하이마트 얼리 에어컨 판매전

최근 최고기온이 20도를 웃돌고 평년보다 높은 평균기온을 기록하는 등 때 이른 더위가 나타나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가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갑작스럽게 더위가 찾아온 최근 일주일 (4월 8일~4월 14일) 롯데하이마트에서 판매된 에어컨 매출은 직전 일주일 (4월 1일~4월 7일)보다 90% 늘었고, 같은 기간 선풍기는 직전 일주일보다 100% 늘었다. 에어컨의 경우 전년 동기(2025년 4월 8일~4월 14일) 대비로도 1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 '3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

으로 한 '6개월 전망'에서도 9월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하이마트는 이러한 수요에 맞춰,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30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SUPER 얼리 에어컨 세일'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브랜드 에어컨 행사상품을 특가에 선보이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12%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자체브랜드(PB) 상품인 'PLUX 저소음 슬림형 실링팬'을 동시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냉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패키지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기존 에어컨을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클리닝 서비스도 강화했다.

/신원선 기자

“가렵고 붓는 고통 끝낸다”... 기존 약 한계 넘을 ‘승부수’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공략

유한양행, ‘레시게르셉트’ 개발
 亞·유럽 지역서 임상 2상 본격화
 불응 대상자까지 임상군 포함

HK이노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국내 첫 바르는 연고제로 개발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투이미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표준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미충족 수요’ 환자군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앞세워, 다국적 제약사들이 독점해온 시장 판도를 흔들겠다는 포부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차세대 알레르기 신약 후보물질 ‘레시게르셉트(개발 코드명: YH35324)’를 개발해 왔다.

레시게르셉트는 혈중 유리 면역글로불린 E(Ig E)의 수준을 낮춰 알레르기 증상을 개선한다.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를 비롯해 면역글로불린 E가 매개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면역글로불린 E는 외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인체 면역 체계가 생성하는 항체로 알레르기 반응에 관여한다.

레시게르셉트 핵심 경쟁력은 기존 표준 치료제인 오말리주맙 대비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면역글로불린 E 억제력이다.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예비적 개념 증명을 입증했다. 또 임상 평가 지표인 지난 7일간의 두드러기 활성 점수에서 증상 개선 신호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월부터 다국가

임상 2상이 본격화됐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불가리아, 폴란드 등 아시아·유럽 지역에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환자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2027년 4분기 주요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임상에서는 오말리주맙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았던 ‘불응 대상자’까지 임상군에 포함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미충족 수요가 큰 집단을 집중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글로벌 행정 절차도 순항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2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중국에서도 임상2상 IND가 허가됐다. 유럽에서도 임상시험 승인 심사 절차를 밟고 있어 향후 임상 연구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레시게르셉트는 유한양행 중장기 R&D 전략의 주요 파이프라인이다. 유한양행은 글로벌 기술수출(L/O)을 타진하는 한편 오는 2029년 상용화를 이뤄 2030년 300억원 수준의 수익성을 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유한양행 측은 “보다 많은 환자에서 레시게르셉트의 임상적 특장점, 유효성, 안전성 등을 확보해 차세대 블록버스터 물질을 육성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HK이노엔은 바르는 경증·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도전한다.

HK이노엔의 ‘IN-115314’는 JAK-1 억제제 계열 약물 중 국내 최초로 바르는 제형(연고제)으로 개발되고 있다. 면역조절물질인 야누스 키나제-1(JAK-1)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고 염증 부위에 국소적으로 작용한다. JAK-1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 약

물 대비 전신 흡수량이 적고 부작용 위험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HK이노엔은 이달 1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IN-115314’ 임상 1b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체용 임상 2상과 반려견용 아토피 치료제(경구제)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반려견용 치료제는 먹는 제형(경구제)이다.

국내 신약개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알레르기 질환은 환자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편의성이나 복약 순응도를 고려한 제형 개발이나 용법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시장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다국적 제약사의 공세도 거세다. 지난 15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노바티스의 ‘렙시도(성분명: 레미브루티닙)’가 2세대 항히스타민제 치료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환자 치료제로 허가됐다. 렙시도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제로는 최초의 먹는 약으로, 브루톤 티로신 키나아제(BTK) 억제제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동아에스티, AACR서 ‘K-항암·ADC’ 알려

(美암연구학회)

(약물 접합체)

재팬 첫 학회... 토종 제약사 위상 ↑
 SC5024, 암세포 억제·사멸 효과
 SC3499, 한 번 투여로 종양 감소 뚜렷

동아씨오그룹은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6)’에서 항체·약물 접합체(ADC)와 신규 항암 파이프라인을 대거 공개한다.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행사에서 R&D 결과를 공유하며 차세대 항암제 선두 주자로 입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1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동아씨오그룹 내 신약개발 회사인 동아에스티와 ADC 전문 회사 앵티스는 이번 AACR에서 9건의 포스터를 발표한다. 동아씨오그룹의 R&D 조직이 새롭게 재편된 이후 첫 학회 참가로 토종 제약

사의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씨오그룹은 성무제 에스티랩 대표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으면서 중심을 잡았고, 동아에스티 R&D 총괄에 오윤석 부사장, 최형석 앵티스 대표가 머리를 맞대면서 항암 및 ADC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동아에스티는 신규 PARP7 저해제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를 통한 항암 치료 가능성을 강조한다. PARP7은 단백질 기능을 조절하는 효소로, 다양한 암에서 발현이 증가하며 종양 성장과 면역 회피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에스티의 ‘SC5024’는 신규 PARP7 저해제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PARP7 효소 활성을 억제해 다양한 암세포에서 성장 억제 및 사멸 효과를 보였고

종양 미세환경의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했다.

동아에스티와 HK이노엔 공동 연구팀이 개발한 후보물질 ‘SC3499(IN-207375)’는 EGFR 단백질 분해제다. 기존 억제제와 달리 EGFR 변이 단백질 자체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폐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L858R 변이를 가진 EGFR을 선택적으로 표적한다. 세포 및 동물 모델 모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였고 하루 한 번 경구 투여만으로도 체중 감소 없이 뚜렷한 종양 감소가 관찰됐다.

동아씨오그룹 관계자는 “정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혁신 신약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SK케미칼, 저용량 3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

유한양행과 개발한 ‘텔암클로정’

하 효과를 보인다.

SK케미칼이 저용량 3제 복합 고혈압 치료제 ‘텔암클로정(이하 텔암클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텔암클로는 텔미사르탄 20mg, 암로디핀 2.5mg, 클로르탈리돈 6.25mg을 결합한 저용량 복합제로, 각 성분을 단일제 표준용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구성했다. 동일 성분·용량의 트루셋정을 발매한 바 있는 유한양행과 협력을 통해 개발된 제품이다.

실제 국내 28개 기관에서 약 3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텔암클로 투여군 환자의 8주 시점 수축기 혈압은 기저 대비 평균 19.43mmHg 감소해 텔미사르탄 40mg 단일제(15.65mmHg 감소) 대비 더 큰 혈압 감

의 효과를 보였다. 텔암클로는 1일 1회 복용으로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였으며 각 성분의 반감기가 길어 안정적인 혈압 조절이 가능하다.

박현선 SK케미칼 파마사업 대표는 “텔암클로를 출시하며 단일제와 2제 복합제에 더해 3제 복합제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며 고혈압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변화하는 치료 환경과 임상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한 개발 전략과 포트폴리오 확보를 통해 처방의약품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케미칼은 ▲로스사르탄 성분 단일제 ‘코스카정’ ▲이노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의 2제 복합제 ‘코스카플러스’ 등 고혈압 치료제 10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유럽서 안정적 성장세... 현장 중심 직판 성과

베그젤마, 앵토즈마 등 경쟁력 ↑

셀트리온의 항암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가 유럽 주요국에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전반에서 성과를 넓히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항암제에서는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사진)가 안정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현지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UnihA·주요 대학병원 연합 구매단체)를 비롯해 ‘하콤’(HACOM·노르망디 공립 병원 연합 구매단체), ‘그랍스’(GRAPS·지역 공립병원 연합 구매단체) 등의 핵



심 입찰에서 잇따라 낙찰되며 제품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프랑스 법인은 베그젤마에 이어 유방암 치료제 ‘허주마’도 유니하를 통해 프랑스 전역에 공급 중이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역시 파리대학병원 연합 입찰에서 낙찰됐다. 독일에서도 트룩시마와 베그젤마는 오리지널 및 경쟁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제치고 처방 1위, 허주마는 2위를 기록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기준 베그젤마는 유럽에서 약 30%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베바시주맙 시장 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도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앵토즈마’는 스페인 바스크 컨트리, 마드리드 등 지역 공공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한 데 이어, 보건부 산하 입찰기관인 ‘인게사’(INGESA) 주관 입찰에서도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포르투갈에서는 앵토즈마 오토인젝터(AI)와 바이알(Vial) 두 가지 제형이 모두 국가 입찰에서 1순위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이세경 기자

애경산업 ‘포인트’, 클렌징·팩 한 번에 해결

‘젤라도 팩 클렌저’ 4종 선보

애경산업의 클렌징 전문 브랜드 포인트에서 색다른 제형과 다양한 향을 갖춘 ‘젤라도 팩 클렌저’ 4종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인트 젤라도 팩 클렌저는 클렌징과 팩을 한 번에 해결해 번거로운 스킨케어 단계를 줄인 것이 특징이다. 미세먼지를 약 96.4%까지 제거하는 세정력을 구현한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에서 일시적 피부 온도 약 25% 감소, 사용 직후 약 9.6°C의 냉각 효과 등을 기록했다.

이번 신제품은 총 4종으로 피부 고민과 취향에 맞춰 선택 가능하다.

‘젤라도 민트초로 팩 클렌저’는 모공



포인트 ‘젤라도 팩 클렌저’ 4종. /애경산업

속 노폐물을 세정해 주고 시원한 민트초로 향까지 전달한다. ‘젤라도 소프트 무화과 팩 클렌저’는 피부 묵은 각질을 83.9% 없앤다. 피부 톤을 개선할 수 있는 ‘젤라도 시트러스 유자 팩 클렌저’는 유자 껍질 파우더와 유자 추출물을, 피부 붓기를 관리하는 ‘젤라도 단팥 팩 클렌저’는 팥 파우더와 팥 추출물을 각각 처방했다. /이청하 기자

LOTTERIA™ × 신대방 온정돈까스

디지게 매운 돈까스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WARNING

환자,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 매운맛 섭취에 민감한 분들은 섭취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WARNING

“미래 의학발전 적극 지원”... 대상에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 젊은 의학자상에는 유승찬 부교수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서울특별시사회와 함께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유한의학상은 내과계, 외과계, 기초의학 및 지원과 등 각 과를 망라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은 김원 서울의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젊은 의학자상에는 유승찬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부교수와 안유라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



지난 15일 웨스틴 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59회 유한의학상 시상식’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사회장(왼쪽부터),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유승찬 부교수, 서울의대 보라매병원 내과학교실 김원 교수,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교실 안유라 조교수, 김열홍 유한양행 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교실 조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유한의학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젊

은 의학자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김원 교수는 대사 이상 지방간질환(MASLD) 환자에서 개인 유전적 조절 패턴을 정밀하게 추적해 환자 맞춤형 진단과 치료 타겟 개발의 중요한 기초를 닦은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한 유승찬 부교수는 인공지능과 심장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임상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심방세동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안유라 조교수는 영상에서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폐부분절제술이 계획된 경우, 수술 전 폐 조직검사를 신중히 고려할 근거를 입증했다. /이청하 기자



LGU+, 장애인의 날 500만원 기부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 기부 프로그램 ‘천원의 사랑’을 통해 조성한 500만원을 시각장애인 가구의 긴급 의료비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 모습. 왼쪽부터 신태종 LG유플러스 책임, 김재룡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LG유플러스



오비맥주, 건전음주 문화 정착 앞장

주류기업 오비맥주가 음주운전 예방과 책임 음주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낱알코올·무알코올 제품인 ‘카스 0.0’, ‘카스 레몬 스퀴즈 0.0’, ‘카스 올제로’ 등 제품군을 확대하고, 캠페인과 연계해 소비자가 상황에 맞는 음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진은 잠실상권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는 모습. /오비맥주

러너라면 ‘갤럭시 워치런’

삼성전자가 오는 5월 17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러닝 이벤트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갤럭시 워치런 @사파리’는 참가자들이 갤럭시 워치를 착용하고 에버랜드의 ▲로스트밸리 ▲사파리월드 ▲장미원으로 구성된 4.82km 러닝 코스를 달리면서, 갤럭시 워치의 다양한 기능을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로스트밸리와 사파리월드를 직접 달리는 특별한 코스를 경험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한유원·공영홈쇼핑, 우수중소 제품 판매전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이 동행축제를 맞아 공영홈쇼핑과 손잡고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을 펼쳤다. (왼쪽부터)이일용 공영홈쇼핑 대표, 이태식 한유원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 진행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전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한유원



LG생건, ‘피지 세탁세제’ 민텔 혁신상

LG생활건강은 세탁세제 브랜드 피지의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가 ‘2026 민텔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지 모락셀라 냄새제거 세탁세제. /LG생활건강



현대차그룹 HMG브랜드경영담당 지성원(왼쪽부터) 부사장, 장재훈 부회장, 정의선 회장, 익스플로라토리움 윌리엄 F. 맬린 이사회 의장, 린지 비어만 관장, 앤 리처드슨 최고경영책임자(CXO)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익스플로라토리움 체험형 과학관 설립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 체험형 과학관 설립

미국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협업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관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손잡고 국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형 과학관을 설립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스플로라토리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내 과학 문화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체험형 과학관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인류와 미래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며 “익스플로라토리움과 함께 조성할 체험형 과학관은 개개인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차별화된 과학 교육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익스플로라토리움은

‘개인의 호기심이 창의적 미래를 만든다’는 비전에 공감하며 미래 세대에게 차별화된 과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협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설립한 익스플로라토리움은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배우는 이른바 ‘핸즈온’ 전시 기법을 도입해 현대적 의미의 체험형 과학관 모델을 정립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그룹은 과학관을 단순히 보고 듣고 소극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방문객 스스로 직접 탐색하고 실험하며 배우는 참여형 전시 공간으로 꾸릴 계획이다. 과학자, 교육자, 예술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전시 기획과 연구에 참여하고 학교,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대중들이 과학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과학 커뮤니티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퓨처엠, 청소년 ‘자립 씨앗’ 키운다

디딤씨앗통장 후원 이어가기로 80명 대상 총 4800만원 후원

포스코퓨처엠은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이어가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소년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을 맡고 있으며 기업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두 배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 지원액은 월 최대 10만원까지다.

포스코퓨처엠은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포항, 광양, 세종, 서울 지역 청소년 80명

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800만원을 후원한다. 포스코퓨처엠이 대상자 1인당 매월 5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가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1년간 1인당 총 180만원이 적립되는 구조다.

적립금은 청소년이 만 18세가 되면 학자금과 취업 훈련비, 주거 마련 비용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1년부터 디딤씨앗통장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후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3월 기준 누적 후원액은 3억36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4년에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원관희 기자 wkh@

코웨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8개 본상

2007년부터 20년 연속 수상

코웨이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총 8개의 본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비데와 공기청정기 등 생활 가전부터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본상을 수상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년 연속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이번 수상작 모두 지난 3월 iF 디자인 어워드에서도 본상을 수상한 제품으로, 코웨이는 올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KBS △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신경식
- ◆병무청 ◇ 서기관 승진 △ 청장실 이병대 △ 미래병무정책기획단 김성철 △ 입영동원국 우철중 △ 병무민원상담소 강인규

부음

▲ 광동길(향년 95세)씨 별세, 이상수·이상원·이상욱·이상태·이정숙씨 모친상, 조선자·조양랑·김종란씨 시모상, 윤호병씨 장모상, 이준희·이효정·이인희(전자신문 전국부 기자)·이보경·이환희·이유희·이건희·이체린씨 조모상, 윤원준·윤해인씨 외조모상 = 15일 오후 5시, 경찰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장지 경기 광주 공원묘원. 02-3400-1400

▲ 이명희씨 별세, 이정희·이용희(우리영상미디어 대표)·이성희씨 모친상, 이재환(엠택 대표)·김뉴스엔 미디어 이사)씨 조모상 = 16일 오전 5시 25분, 서울 고려대구로 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8일 오전 6시 30분. 02-857-0444

▲ 조기찬 씨 별세, 조정현(전 고려개발)·조은희·조수정·조운주 씨 부친상, 김윤구·김관홍(전 삼성전자)·김성환(한국투자증권 사장) 씨 장인상, 신재분 씨 시부상 = 1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 발인 18일 오전 6시. 02-2258-5940

▲ 이승희씨 별세, 신병수(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씨 모친상 = 16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 장지 충남 홍성군 관천읍 선영. 02-2227-7500

오늘의 날씨

4월 17일 (금)
음력 : 3월 1일

수도권 날씨
14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55 | 해질 / 19:09

연천 11/20, 동두천 12/19, 가평 10/20, 파주 11/20, 서울 14/20, 양평 11/19, 인천 13/19, 수원 12/19, 용인 12/19, 평택 11/18

·자료제공 : Kw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사기꾼과 건강한 경계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그 이면에 숨은 의도를 늘 의심해야 한다. 말과 태도가 그럴듯하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 너무 빠른 속도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자신을 특별히 대우해 주면서까지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한발 물러서서 살펴봐야 한다. 상대가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 드는 기색이 보이면 설령 겉모습은 훌륭해 보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신중하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기꾼의 성격을 논할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 가운데 하나가 다크 트라이어드(dark triad)다. 사회적으로 어두운 성향을 보이는 세가지 성격 요소를 가리키는 용어다. 즉나르시시즘(자기애), 마키아벨리즘(권모술수), 사이코패시(반사회성) 등 세가지 특성이다. 자기애적 과신과 특권 의식, 타인을 조종하려는 병혹한 계산심, 양심 부재와 공감 부족이라는 세가지 면모는 사기꾼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 는 심리 프로파일이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배경이 탄탄한 사

람이라고 해서 방심해선 안된다. 사기꾼들은 특정한 가정 환경이나 학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 야망과 유혹이 맞물리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을 볼 때 막연한 편견에 기대기보다 실제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소 돈이나 성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는 스스로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사기꾼이 될 수 있는 토양을 말리라고 주변에서 그런 인물이 나타났을 때 일찍 포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사기꾼은 사랑, 욕망, 공포를 악용한다. 진정한 사랑과 신뢰는 시간 속에서 검증된다.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갑작스레 운명을 운운하며 금전 요구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마음이 끌려도 일단 의심하는 것이 좋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좀 이상하지 않니?”라고 만류할 때 그 조언을 흘려 듣지 말고 “혹시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달콤한 말 뒤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 로맨스 스캠(연애 사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투자 사기는 인간의 금전적 욕망, 그중에서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벌고 싶다’는 탐욕을 노리는 범죄 형태다. 너무 그

렇듯하게 들리는 투자 제안이라면 우선의 심부터 하는 것이 상책이다. 고위험인데도 담보 없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금전 거래와 투자만큼은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시된 정보의 진위를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단기간에 확정 수익 보장’ 등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약속은 일단 거리를 뒤야 한다. 사기꾼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좀 더 쉽게 돈 벌고 싶다’는 심리를 파고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피싱 사기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 통신수단과 IT 기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스미싱(문자 메시지 내 악성 링크), AI 피싱 등이 대표적이다.

피싱 의심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아무리 긴급해 보이는 전화나 문자를 받아도 즉시 대응하지 말고 일단 전화를 끊고 진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 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실제와 비슷하게 들리더라도 제3자를 통해 진위를 교차 검증한 후 대응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더 의심하는 건강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미토스가 던진 경고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금융권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상담 챗봇부터 이상거래탐지(FDS), 대출심사, 내부 업무 자동화까지 AI는 금융의 효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AI기업 엔트로픽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는 금융권 AI 양면성을 다시 일깨웠다. 미토스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스스로 분석해 숨어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고, 침투 가능 경로까지 설계

할 수 있다. 과거 해커가 수주에서 수개월 걸쳐 찾던 시스템의 약점을 AI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토스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주는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공격 주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금융사의 시스템 구조를 빠르게 분석하고,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해킹 시나리오를 짤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금융권은 계좌이체망, 카드 승인 시스템, 인터넷뱅킹 등 복잡한 레거시 시스템 비중이 높아 작은 허점 하나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전산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해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해야 했던 공격이 AI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제 AI를 얼마나 빨리 도입할지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접근 권한 관리, 내부망 분리, 외부 AI 활용 기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기본적인 통제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혁신은 오히려 새로운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산업이다. 한 번의 보안 사고는 단순한 전산 장애를 넘어 고객 불안과 시장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AI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속도에만 매몰돼 안전장치 마련을 뒤로 미뤄서는 안된다.

/yul1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7일 (음 3월 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거둬 실패가 계속됩니다. **60년생** 매사가 안절부절입니다. **72년생** 과로를 피하고 잠시 휴양을 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84년생** 뒷사람에게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49년생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일 때입니다. **61년생** 근심하며 수양에 힘쓰도록 하세요. **73년생** 남쪽으로 향하세요. **85년생**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하게 됩니다.



50년생 좋은 운은 늘 오지 않습니다. **62년생** 바라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74년생** 개업이나 전업을 흥합니다. **86년생** 병을 초기에 발견하면 빠른 치료를 해야 합니다.



51년생 괴이한 곳에 가지마세요. **63년생** 동쪽에서 온 사람과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75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7년생** 취직은 낮은 데로 지원했다면 합격입니다.



52년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64년생** 부모님에게 좋은 소식을 들읍시다. **76년생**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88년생**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53년생 호화로운 삶을 꾸려 나가며 가족들과 기쁨을 같이 합니다. **65년생** 금의환향(錦衣還鄉)하는 운세입니다. **77년생** 고난이 다가옵니다. **89년생**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54년생 편도선질환을 주의하세요. **66년생**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78년생** 본인의 마음가짐을 중요한 것입니다. **90년생** 싸움에 휘말리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55년생 주변인들이 스스로 도우니 모든 일이 뜻대로 됩니다. **67년생**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79년생**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91년생**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5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68년생** 새로운 사람과 친구가 됩니다. **80년생** 모든 운이 풀려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92년생** 가방 분실을 주의하세요.



57년생 신념을 가지고 매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69년생** 혼자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1년생** 파하는 일마다 마(魔)가 서려 있습니다. **93년생** 헛된 꿈이나 욕망은 삼가하도록 하세요.



58년생 경망된 행동은 삼가해야겠습니다. **70년생** 가족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세요. **82년생** 안되는 일이 없고 부귀와 명예가 따릅니다. **94년생** 모든 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59년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오늘은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83년생** 모든지 양보하면 길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김상회의 四季 2030의 명리학

20·30세대가 명리학 책의 주요 독자? 명리학이라고 하면 나이가 꽤 있는 중장년층의 관심이 큰 분야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점의 분위기를 보면 상황이 의외로 젊은 층이 운명과 사주에 관한 책을 찾으려는 명리학책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의 학 책은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출간되고 있다. 명리를 일상과 연결해서 풀이한 책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래서인지 명리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30세대가 학을 대하는 방식은 기성세대와 조금은 다른 것이 무엇보다 무겁고 지나치게 진지한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의 단정적인 설명보다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도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다.

MBTI처럼 성격 유형을 파악하는 일종의 자기 탐구 놀이처럼 즐긴다. 사주와 오행을 상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기질을 이해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운이 쉬어가는 시기라며 위로를 얻기도 한다. 이들에게 불안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방편이면서 일상의 재미다. 취업난과 주거 불안 속에서 막막한 미래에 대해 작은 힌트라도 얻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명의 이치라는 지혜와 맞닿은 것이다. 운명을 쇼핑하듯 즐기는 모습은 매우 현대적이다. 어떤 방식이든 젊은 세대가 학에 관심을 보이는 현상은 분명 긍정적이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운명을 궁극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이기도 하다. 명리학이 던지는 조언들이 그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 희망찬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월드라임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5		8
1				
8		3 6 7		
9 2				1
4				7
5				8 9
		6 7 8		4
				6
5		1 2	7	

9 3			4 6 7	
	7 2			
			8 3	
3		5 2		4
		8		
2		4 9		5
	2 5			
			8 5	
4 8 7				9 6

8 6 2	7 2 1	8 9 9
2 9 8	6 8 9 7	2 1
7 9 1	8 2 9	2 6 9
6 8 2	1 7 2	6 9 9
2 8 9	9 6 2 1	8 7
9 1 7	8 9 8	2 2 6
1 2 6	2 9 8	9 7 8
9 7 8	2 8 6 9	1 2
8 2 9	9 1 7	6 8 2

9 6 8	9 2 2	8 7 1
2 2 9	8 7 1	8 6 9
8 7 1	9 6 8	9 2 2
9 9 2	6 8 7	1 8 2
8 1 2	2 8 9	6 9 7
7 8 6	2 1 9	9 2 8
2 8 8	1 2 6	7 9 9
6 9 7	8 9 2	2 1 8
1 2 9	7 9 8	2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9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선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흐무와스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부르고뉴 와인의 정석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1

와인 애호가에게 '따뜻한 아이스아메리카노' 만큼이나 모순인 말이 '데일리 부르고뉴' 혹은 '가성비 피노누아'다. 부르고뉴 와인의 가격이야 천정부지로 뿔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까다로운 피노누아 품종의 경우 가성비를 따지다간 품질을 놓치기 일쑤다.

140년 역사를 지닌 '흐무와스네(Remouissenet Pere & Fils)'는 누구나, 특히 젊은 세대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부르고뉴 와인을 내놓는다.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손을 잡아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데일리 부르고뉴의 발견이다.

지난 2005년부터 흐무와스네를 이끌고 있는 피에르 앙투안 로바니(Pierre-Antoine Rovani·사진) 대표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흐무와스네의 부르고뉴 루주는 가장 기본급이지만 코에만 대봐도 붉은 과일과 장미향 등 고전적인 부르고뉴 레드 와인의 정석을 느낄 수 있다"며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소위 전략적인 와인인 흐무와스네, 더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너리 흐무와스네를 이끌고 있는 피에르 앙투안 로바니(Pierre-Antoine Rovani)가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흐무와스네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나이가 부르고뉴를 마시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흐무와스네는 1877년에 부르고뉴 중심지 본에 자리잡은 유서깊은 곳이다. 초기엔 부르고뉴에서 희귀하고 오래된 빈티지 와인을 사들여 유통하는 전문 네고시안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1936년부터는 좋은 포도밭을 사들이며 최상위 생산자로 올라섰다. 오랜 기간 세대교체를 거치며 와인 품질 역시 기록이 있던 것이 2005년 뉴욕 금융가 컨소시엄이 인수하며 위상을 회복했다.

로버트 파커의 와인 애드보킷(Wine Advocate)에서 오랜 기간 수석 와인 평

론가로 활약했던 피에르도 이때 합류했다. 2ha에 불과했던 소유 포도밭은 25ha까지 늘어났다. 와인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포도밭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최고의 와인은 최고의 열매(포도)에서 나온다"며 "와인 양조 단계에서 철칙이라고 한다면 집착이라고 할 만큼 엄격하게 포도를 분류·선별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 부르고뉴의 발견담게 이 집은 기본급 와인을 먼저 만나봐야 한다. 프랑스어로 명성이란 의미인 '흐노메'로 이름붙인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다.



(왼쪽부터)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흐노메 2021, 흐무와스네 사브니 레 본 블랑 2020,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루주 흐노메 2022, 흐무와스네 페르낭 베르젤레스 프리미에 크루 앙 까하두 2019, 흐무와스네 지브리 상베르탱 2020.

흐무와스네 입장에서 기본급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가장 애를 먹이는 와인이기도 하다.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블랑 흐노메 2021'는 호된 봄 서리로 힘든 해였지만 전형적인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의 우아함을 잘 살려냈다.

'흐무와스네 부르고뉴 루주 흐노메 2022'는 마시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레드 와인이다. 타닌은 존재감은 있지만 부드럽고, 신선한 과실은 절제됐다. 그는 "좋은 와인이란 튀지않고 여러 요소를 감싸안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평했다.

흐노메를 통해 부르고뉴로 입장했다

면 이제 한층 더 깊이 파내려갈 차례다. 영화같은 한 장면이 시작될테니 잘 따라오셔라.

누군가가 나에게 걸어들어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여러 요소를 짚으며 말해주는 심장에 칼을 꽂아버린다. 그럼 무엇이 더 기억에 남겠는가. 나에게 대한 칭찬인가, 칼인가.

한창 와인 얘기를 하던 중에 이 무슨 섬뜩한 비유이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피에르는 "요즘은 아로마 판별에 치중하다 보니 질감과 여운을 놓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끝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양조 개입을 하지 않고 좋은 포도가 스스로 표현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흐무와스네 사브니 레 본 블랑 2020'은 그만큼 질감과 여운이 인상적인 와인이다. 높은 고도로 산도 좋은 구획과 점토질로 풍미가 있는 구획이 모여 복합미와 여운이 입 안을 가득 메운다.

'흐무와스네 페르낭 베르젤레스 프리미에 크루 앙 까하두 2019'는 포도밭의 석회질 토양과 경사진 지형이 그대로 반영됐다. 산도가 좋는데 알칼리는 과실도 어우러져 구운 삼겹살과 딱 어울릴 맛이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중앙그룹 콘텐츠 칸 진출... 글로벌 경쟁력 증명

영화 '호프', 드라마 '신의 구슬' 칸 영화제·칸 시리즈 동시 진출

중앙그룹이 세계 최고 권위의 칸 영화제와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칸 시리즈)에 영화와 드라마 작품을 동시에 진출시키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룹 산하 영화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의 영화 '호프(HOPE)'(감독 나홍진)가 제79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SLL이 제작한 드라마 '신의 구슬'이 제9회 칸 시리즈 비

경쟁 부문 란데뷰(RENDEZ-VOUS)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

'호프'는 이번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을 비롯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테르, 테일러 러셀 등 글로벌 캐스팅으로 기획 단계부터 큰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독창적인 세계관, 거기에 '칸의 심미안'까지 충족시킨 만큼 공개 이후 세계시장에서 K-영화의 위상을 높일 강력한 화제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목받고 있다.

SLL이 제작한 시리즈 '신의 구슬' 역시 제9회 칸 시리즈 비경쟁 부문 란데뷰(RENDEZ-VOUS)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핑크카펫을 밟는다. '신의 구슬'은 '재벌집 막내아들'을 연출했던 정대운 감독과 '정도전' '녹두꽃'의 정현민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한국적 배경에 밀도 높은 서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동시 진출은 중앙그룹이 추진해 온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성공 방정식을 여실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시네마 역대급 사운드관 베트남 상륙

광음시네마 첫 해외진출 발표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Culture Square)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의 첫 해외 진출을 발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롯데시네마는 지난 6일 베트남 호찌민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고팜'에 사운드 특화관 광음시네마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해외 진출은 글로벌 전용 브랜드인 'BOOMAX'를 통해 이루어졌다. 'BOOMAX'는 심장을 울리는 초저음을 뜻하는 'BOOM'과 음압 증폭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MAX' 합성어로, 국내에서 입증된 광음시네마의 압도적인 사운드 정체성을 글로벌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브랜드했다.

광음시네마의 첫 해외 진출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역동적인 시장 성장세에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경험 소비와 프리미엄 관람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며 특히 청각적 몰입감이 중요한 호러,액션 장르의 선호도가 압도적이다. 롯데시네마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BOOMAX'를 순차 도입하여 베트남 내 프리미엄 상영관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여겠다는 전략이다.

롯데시네마 고팜에 첫선을 보인 'SUPER PLEX WITH BOOMAX'는 롯데시네마의 대표 PLF 상영관인 슈퍼플렉스(SUPER PLEX)에 광음시네마를 접목한 특화관이다. 초대형 스크린이 주는 시각적 압도감에 온몸으로 느껴지는 강력한 저음역대의 광음 사운드를 더해 관객들에게 궁극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실제 상영관을 찾은 현지 관객들은 "음향 100점. 음악 나올 때 좌석이 진동해 생동감이 엄청나다"며 "사운드가 생생하고 화면은 선명하며 공간까지 쾌적해 완벽한 몰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새로운 사운드 경험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광음시네마 성과는 이미 독보적이다. 현재 전국 22개관을 운영 중이며 이달 말 롯데시네마 창원과 수원(아울렛)에 2개관을 추가 오픈해 국내에서만 총 24개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 특히 최근 SF 대작 '프로젝트 헤일메리', 공포 영화 '살목지' 등 사운드가 핵심인 영화들이 광음시네마와 시너지를 내며 일반관 대비 확연히 높은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성공이 해외 브랜드 'BOOMAX'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SOOP, 튀르키예 쿠파스 생중계... 오현규 출전

전 경기 중계... 해외축구 콘텐츠 확대

SOOP(숭)이 해외 축구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국가대표 공격수 오현규의 클럽 활약도 국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SOOP은 25·26 시즌 튀르키예 쿠파스 본선 전 경기를 국내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튀르키예 쿠파스는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식타시 등 현지 명문

구단이 참가하는 컵 대회로,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주목받는 대회다. SOOP은 이번 중계를 통해 해외 스포츠 콘텐츠 라인업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베식타시에 소속된 오현규의 경기까지 중계 대상에 포함되면서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오현규는 팀 합류 이후 9경기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빠르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팬



스타가 참여한다. K리그를 비롯해 세리에A, UEFA 챔피언스리그 등 다양한 리그 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현장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들도 그의 활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계에는 박찬우, 이완우해설위원과 김태우, 홍석현, 윤요섭 캐스터가 참여한다. K리그를 비롯해 세리에A, UEFA 챔피언스리그 등 다양한 리그 중계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현장감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란전으로 85조원 규모 에너지 인프라 피해 발생”
▲G7 재무장관, ‘중동 정세 조기 진정’에 공감... 공동성명은 보류 /사진 뉴시스

▲작년 日방일객 첫 4000만명 돌파...중국·중동 변수는 부담
▲“美 호르무즈 봉쇄 이후 16척만 통항...이란행은 옥수수 수송선 1척”

▲2차협상 앞美압박에 ‘레바논 1주 휴전’ 급부상... 네타나후 선택은
▲美, 日에 토마호크 납입 지연 가능성 통보...이란전 ‘불뚝’



배달포화·가격부담
브랜드 쏠림 심화
치킨시장 '정체'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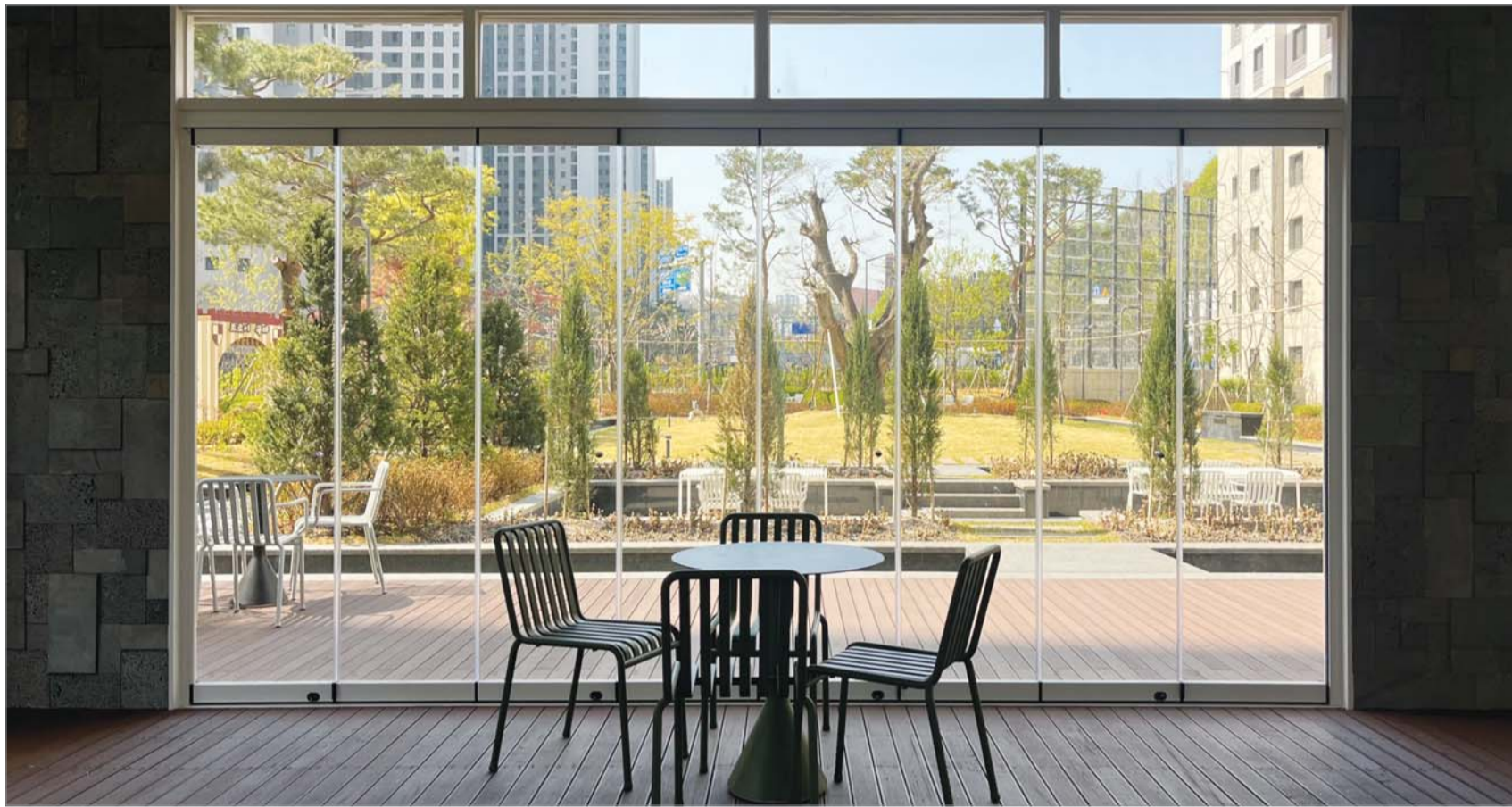


Life

알레르기 치료제
기존 약한계 넘을
승부수 띄운다
L2



전설 품은 나무, 고대신전 정원... 조경에 신화를 입히다



녹지·교통·교육 삼박자 갖춘 대단지
그리스로마신화 콘셉트로 조경 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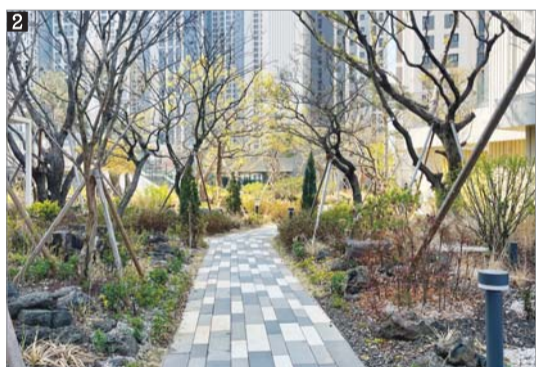
단지 중앙에 상징목 팽나무 자리잡아
수령 250년 수호목... 단지 안녕 기원
잔디마당과 어우러진 뛰어난 경관 설계

그리스로마신화 이야기 담긴 놀이터
파고라·차양에도 신화 속 분위기 가득
도심 속 숲길 연출한 자연형 산책공간
새소리와 함께 평화로운 쉼터 조성해

철산자이 브리에르 단지 내 티하우스에서 '어반갤러리어드' 정원을 바라본 풍경.

아파트의 미학(美學)

철산자이 브리에르



1 상징목인 팽나무가 자리잡은 '어반갤러리어드'
2 구불구불한 숲길처럼 조성된 단지 산책로.
3 숲 속의 휴식을 표현한 산책공간 '그린레인 가든'
4 수령 250년 상징목 팽나무. /성채리 인턴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대림역에서 내려 버스로 약 20분을 가면 '철산자이 브리에르'가 나타난다.

GS건설이 철산주공10·11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0층 14개 동, 총 149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해 단지 안팎에는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환경이다. 단지에서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도덕초와 광명북초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으며 광명북중·광명북고도 도보권에 있다. 목동 학원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단지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과 맞닿아 있어 서울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입지다. 버스 환승으로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구일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 주요 도로망도 갖춰져 있다. 안양천과 광명햇살광장, 현충근린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입구에는 상가와 함께 '파노라마 힐즈가든'이 조성돼 있다. 계단과 산책로를 따라 이동하면 다양한 높낮이의 시선에서 경관이 펼쳐진다. 이름 그대로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하듯 단지를 조망할 수 있다. 아래쪽에는 정원과 함께 마련된 수경 시설이 있다. 계단 바로 아래 휴식공간 마련돼 물소리를 들으며 계단을 그늘 삼아 쉴 수 있다. 조경과 상업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효율적인 설계가 특징이다.

'어반갤러리어드'라는 이름의 정원에는 상징목인 팽나무가 자리 잡고 있다. 우뚝 선 수형이 웅장하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준다. 이 나무는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서 매년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던 정자나무로 오랫동안 사랑받았다. 지역개발로 전북 남원으로 옮겨져 약 7년간 아름답기로 가꿔지다 이곳으로 오게 됐다. 수령 250년으로 추정

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수종으로 단지의 바람을 막아주는 수호목이다.

상징목 앞쪽으로는 수공간으로 둘러싸인 잔디마당이 있다. 잔디마당 너머에서 바라보면 낮은 수목 사이로 팽나무의 존재감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건너편의 티하우스에서는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함께 정원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 놀이터는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로 구성됐다. 단지 곳곳의 놀이시설에는 그리스·로마신화 서사가 담겼다. 트로이 목마를 형상화한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내부를 탐험하며 전쟁 서사의 영웅이 되고, 파르테논 신전 대모험 놀이터에서는 고대 신전을 모티브로 한 구조물을 통해 신화 속 세계로 들어간다. 미노스왕 테마 공간은 크레타섬을 배경으로 포세이돈 신화를 풀어낸다.

각 공간은 놀이 동선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 이어진다. 미끄럼틀, 통로, 전망대 등 이동과정이 '탐험'처럼 구성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사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단순 놀이시설을 넘어 체험·교육 요소를 결합한 공간이다. 단지 전체에 신화적 콘셉트를 입히며 마치 하나의 테마파크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주변 정원과 수목, 계절 식재와 어우러지며 놀이터는 하나의 '뷰 포인트'가 된다.

신화 속의 분위기는 휴식공간에서도 느껴진다. 직선 프레임의 파고라와 아치형 차양은 신전의 회랑을 연상시킨다. 색깔 역시 파스텔톤을 중심으로 디자인해 신비롭고 세련된 인상을 준다. 일부 시설은 원형 테이블과 곡선형으로 변주를 줬고, 놀이공간과 이어지는 동선 속에서 정적인 휴식과 역동적

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하나의 콘셉트로 묶이면서 단지 전체가 그리스·로마신화 속 배경처럼 연출된다.

특히 자연형 산책 공간 '그린레인가든'은 식재와 자갈, 흙이 드러난 산책로가 어우러지며 숲 속 경관을 이룬다. 자연과 인공 구조물이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린이집 옆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산책로는 단지 안에서 별도의 '숲길'처럼 조성돼 있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보행로를 나뭇가지들이 자연스럽게 감싸며 숲속을 걷는 듯한 분위기를 만든다.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새소리가 흘러나와 평화롭고 정적인 공간에 생동감을 더한다.

단지 내에는 스쿨버스존, 아너스클럽(경로당), 클럽자이안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돼 있다. 각 시설은 외관부터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다. 석재 마감과 커뮤니티 명칭을 강조한 디자인 등이 어우러지며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준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 '클럽자이안'은 지하로 연결되는 동선으로 설계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철산자이 브리에르의 조경은 단순한 녹지를 넘어 '콘셉트형 공간'을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상징목과 자연친화 산책로 등 기본적인 녹지 요소를 탄탄히 갖추면서도, 그리스·로마신화 서사를 입힌 놀이시설과 신전을 떠올리는 휴식공간,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자연과 인공, 정적 휴식과 동적 체험이 균형을 이루며 단지 전체는 하나의 테마 공간으로 완성된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김다인·이다현 등 여자배구 대표팀 18명 확정...20일 선수촌 소집
▲최휘영 문체부 장관·유승민 체육회장, 추경 주요 사업 후속조치 논의 /사진 뉴시스

▲KT, 대형 악재...안현민·허경민, 허벅지 부상 이탈
▲"이런 경기 처음 봐" 이틀간 사사구 28개...한화 팬들 "장난하냐"

▲신진서·박정환, 중국 기사 꺾고 란커배 세계바둑오픈 16강 진출
▲태권도 하지웅, 세계청소년선수권 남자 59kg급 은메달 수확